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벗

4 1997

별책 부록 : **어티이탄**



성도의 삶



표지 설명

그림: 안토니오 시엘리, *예게 호모(이 사람을 보라)*, 19세기 이탈리아 화가, 뉴욕 알리나리/아트 리소스, 뉴욕. 이 장면은 유대 주둔 로마 중독인 빌라도가 채찍질 당한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마지막 재판으로 맡기는 순간을 묘사한 것이다. ("사랑을 이긴 승리", 비 힝클리 대관장, 2쪽 참조)

어린이란 표지:

그림: 존 스틸, *예수님과 어린 소녀*
프르비덴스 리소그래프 사의 허가를 얻어 사용함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사망을 이긴 승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10 "오, 사랑스러운 아침!":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와
첫번째 시현 칼로스 이 에이시 장로
- 17 "하나님이 함께 계셔..." 디앤 워커
- 20 불굴의 매리 앤 렉스 지 젠슨
- 34 카보베르테에 부는 복음 변화의 바람 앤드류 클리크
- 38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브루스 시 히펜 장로

청소년란

- 8 영적인 상처를 치유함 재닛 웨이트 베넷
- 26 성공적인 말씀을 위한 계획 대린 리스고
- 28 기다렸던 성전 결혼 패트리샤 이 맥이니스
- 31 물문경을 함께 나눔 빅터 카말고
- 32 집으로의 여정 제니퍼 갠트 액셔

정기 특별 기사

- 1 애독자 편지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진리를 깨달음

어린이란 (별책 부록)

- 2 물문경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과 기도를 가르치심
- 4 이야기: 한 주 동안의 비밀 제니퍼 젠슨
- 7 순종으로 얻는 평안 렉스 디 피네가 장로
- 8 부활절 이야기 매리터 슈크
- 10 함께 나누는 시간:
회개—잘못을 옳은 것으로 바꿈
캐러 애쉬튼
- 12 심심풀이
- 13 친구 사귀기: 예루살렘의 댄 볼
제이미 맥콤버
- 16 어린 친구를 위하여: 느낌
핏 그레이엄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스, 제임스 이 피우스트

심사도: 정원화:보이드 케이 페커, 앨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벨스, 앨리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블라드, 조셉 비 워스리, 린치드 지 스쿠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랜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러드
 고문: 스펜서 제이 콘다, 엘 리이오닐 캔드릭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나이튼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올 로이보그

편집팀:
 관리 편집인: 카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윌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셸, 디앤 워커
 편집보조: 제니퍼 그라우트
 편집/제작부장: 데리엔 마틴데일
 제작보조: 해스 데일리

디자인팀: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켈먼
 디자이너: 해리 록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테니스 커비,
 매튜 에이치 맥스웰

구독담당스팀: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락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랜슨

통 권: 제 373호, 제 34권, 제 4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7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윈
 편집인: 한상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7년 제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미 승안-8/94 반역 승안-8/94 April, 1997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7964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검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 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21,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27,000원, 3지역(중동 등) 36,400원, 4지역(중남미 등)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기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ward/지부야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8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14.00 per year.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ddress and new one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016-0368, USA. Subscription Help Line: 1-800-453-3860, U.S. ext. 2947; Canada ext. 203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The SOUNGDO-UI PO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 중국어, 핀란드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시리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튀르키예어
 격월간: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러시아어

우리의 신앙에 따라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읽고 저는 오랜 기다림의 세월 후에 지금은 선교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옛 공산국가의 교회 회원들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힐클리 대관장님의 멕시코 방문과 역사적인 사건인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신약과 구약의 지혜 및 현대 예언자들의 계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리아호나가 리하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따라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니파이 일서 16:28~29; 엘마서 37: 38~40절 참조)

세르지오 트레호 레이에스
 과달라하라 유니온 스테이크
 아메카 지부

"예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일은 무엇인가?"

저는 16세로 교회에 들어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모범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저는 행복했습니다. 복음은 우리 가정에 평안과 사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은 종종 제가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분께서는 저의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신 것을 비롯하여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아 카프차 아타후암
 페루 후아누코 스테이크
 산루 지부

큰 변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반항하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생활에 더 큰 활기를 넣어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앞으로써 제 삶은 새로운 이정표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회원이 되기로 결심한 것을 결코 후회해 본 일이 없습니다.

매어리 리 조이 시가요
 필리핀 라 피 스테이크
 제2와드



영적인 안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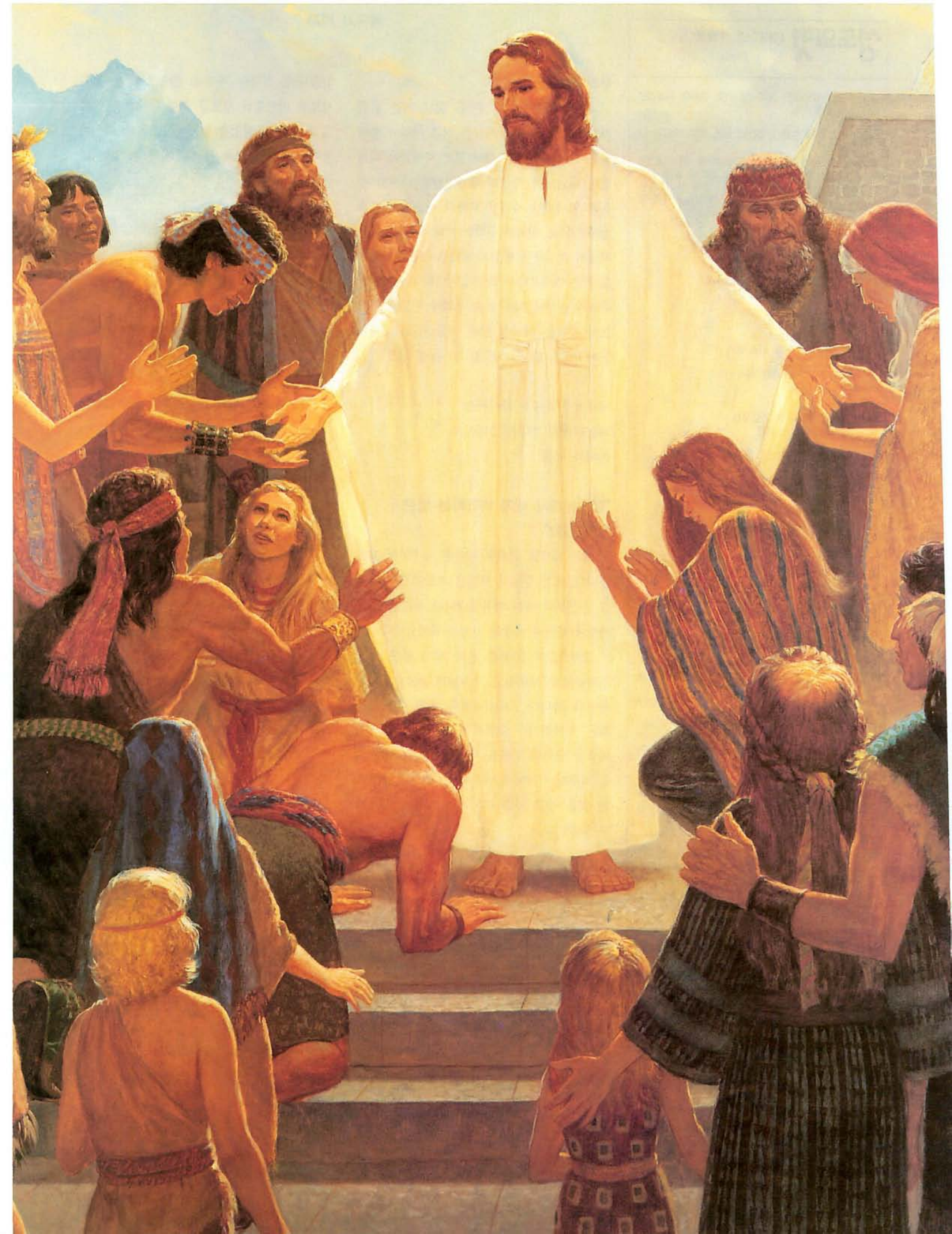
경전과 더불어 레프와르(불어 판)는 저의 영적인 안내자입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형제 자매들이 얘기하는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 제 자신의 힘을 발견합니다. 이 잡지는 복음이 참되다는 저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고 자신을 훌륭하게 생각하도록 도와줍니다.

요보 드르카 자매
 아이보리 코스트 아비장 선교부

순종의 기쁨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힘을 받으며 그 힘은 끝까지 견디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기꺼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분의 교회, 즉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에어로푸에르토 와드의 청녀들
 시우다드 오브레곤 아키 스테이크



사망을 이긴 승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부활절은 한 해 가운데서도 참으로 영화로운 날입니다. 이 날은 전세계의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우리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필멸의 모든 현상 가운데서 죽음만큼 분명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의 슬픔은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애통해 하는 미망인, 어머니를 잃은 자녀, 가족을 잃고 혼자된 아버지—이들은 모두 이별의 아픔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고도 장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은 대속의 희생을 통해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신의 권세로 무덤에서 승리하여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며, 온 인류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원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림: 에롤드 코핑, 무덤 앞의 마리아, 프로비던스 라이토그래프 사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무덤에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5-6)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기 14:14) 이것은 욥이 질문한 것이지만 전인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는 모든 산 자들이 생각해 왔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갔으나, 처음으로 무덤에서 일어나 영과 육신이 완전히 결합된 살아 있는 인간이 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린도전서 15:20)가 되신 것입니다. 첫 부활의 아침에 천사들이 한 말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누가복음 24:5)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6)

주님은 죽음을 통해 그분이 온 인류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간증을 결봉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모든 역사를 다 살펴보아도 주님의 장엄함에 비할 것은 없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이신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 베들레헴의 한 마굿간에서 필멸의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렛에서 자라 소년이 되었고,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누가복음 2:52)

십자가에 못박히심

주님은 요단 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태복음 3:16~17)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상에서의 3년 간의 성역 기간 중에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그 이전에 가르친 적이 없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 희생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다락방에서 만찬이 베풀어졌을 때, 주님은 필멸의 상태로서는 마지막으로 십이사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겸손과 봉사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후 겻세마네의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주

님은 “그 고난은 하나님ियो,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다]”(교리와 성약 19: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거칠고 잔혹한 인간의 손에 이끌려, 그것도 법물에 위배되게 밤중에 안나스 앞에 끌려 갔으며, 그 후에 교활하고 사악한 산헤드린 관원인 가야바에게로 끌려 갔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주님은 이 간교하고 타락한 사람 앞에 두 번째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 후, 그분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으로 끌려 갔으며, 빌라도의 부인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마태복음 27:19) 빌라도 총독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으로 주님을 부패하고 탐욕스럽고 사악한 갈릴리의 헤롯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욕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으며, 피가 흐르는 몸에는 웃음거리로 흉포가 걸쳐졌습니다. 그분은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 갔으며, 군중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누가복음 23:21)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님은 비틀거리며 끌고다까지 가셨으며, 그 곳에서 그분의 상한 육신은 잔혹한 인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비인간적이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생명은 고통 속에서 스러져 갔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분은 바깥 마른 입술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습니다.]”(누가복음 23:46)

끝이 났습니다. 주님의 이 생의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인간을 위한 속죄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사망을 이긴 승리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주님

이 하셨던 약속은 잊혀졌습니다. 주님의 시신은 유대인의 안식일 전야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무덤에 급히, 그러나 조심스럽게 눕혀졌습니다. 그 안식일이 지나갔습니다. 다음날인 일요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일찍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무덤 입구에서 돌을 어떻게 굴러낼지 걱정하며 서둘러 그 곳으로 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5~6)

이것은 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빈 무덤은 인류 역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린도전서 15:55)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으며, 피가 흐르는 그분의 몸에는 웃음거리로 흉포가 걸쳐졌습니다. 주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 갔으며, 군중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누가복음 23:21)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림: 인토니오 시세라, 예레 호모(이 사람을 보라!), 일라나리/에트 리소스, 뉴욕

첫 부활절이 된 부활의 아침의 기적은 모든 인류를 위한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의 기적으로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을 위한 사랑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분은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의 세계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듯이 우리도 각자 배우고 가르치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인격체로서 계속 될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무덤에서 나오셨듯이 우리도 모두 육과 영이 재결합되어 부활의 날에 생명을 지닌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러하고 모든 인류가 그러해야 하듯이, 전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화롭고 가장 큰 위안과 확신을 주는 사망을 이긴 승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며 기쁨을 느낍니다.

부활의 실제성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엄숙하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삼 일 동안 고통과 슬픔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간증한 사람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읽었으며 그들이 본 것을 부인하기 보다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리려는 의지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방문을 받은 팔레스타인과 신대륙 사람들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영은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간증이 참되다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경륜의 시대가 시작될 때,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고, 생명을 바쳐 자신의 피로 그 간증을 인봉한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엄숙하게 선언하였습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교리와 성약 76:22-23)

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76:22~24)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는 엄숙하게 부활의 실제성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인간에게 가르치셨던 복음을 지상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돌아오셨으며,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실제성에 대한 증거가 더욱 확실해졌고, 또 인간에게 거룩한 신권이 주어져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우리의 간증이며, 우리는 인류의 구세주인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오는 축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인류에게 그 간증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옅은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왔던 것을 질문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2. 주님의 부활의 기적은 모든 인류를 위한 기적이다. 사망을 이긴 승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안과 확신을 주는 사건이다.

3.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거 외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말일의 증인들의 간증이 있다.

4. 우리는 그리스도요 인류의 구세주로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오는 축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이 증인들의 간증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



영적인 상처를

치유함

제넷 웨이트 베넷

어린 시절부터 항상 그래 왔습니다. 매주 성찬 축복 기도가 시작될 때마다 언제나 저는 더 재미난 것에 정신을 팔고 축복 기도애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성찬을 취하려고 고개를 숙이면서 우연히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긁힌 자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밖에 나갔다가 자전거에서 넘어져 생긴 것도 있었고, 부주의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생긴 자국도 있었습니다. 제 손은 제가 저지른 행위로 인해 생긴 자국들 투성이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더 오래된 자국도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대부분 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상처 자국들을 부드럽게 만지면서 저는 다른 누군가의 손에 난 상처를 생각해 보았고 그 상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저의 육신에 치유해야 하는 상처가 생긴 것처럼 저의 영도 저의 부주의로 상처받고 흠집을 남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상에 있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영적인 상처를 만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

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찬 축복 기도를 열심히 듣기 시작하면서 저는 성찬을 취하고 성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구세주께서 저의 영혼 내부의 상처를 닦아 내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내내 저는 가족들에게 불만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청년 지도자들에게 감사하지 않았으며, 여러 면에서 온전하지 못했었습니다. 제 영혼은 원래의 온전함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저는 육체적 상처를 치료하는 공식은 알고 있었지만 영적 상처의 치유법은 제가 다음과 같은 성찬 축복 기도를 주의하여 듣기 전에는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을 당신 앞에 증거 하시고 그리하여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교리와 성약 20:77)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성찬을 취하려고 손을 내밀 때 가벼운 상처 자국이 있는 제 손을 보며 저를 돌이켜 볼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저는 다음 주 동안 제 내부의 상처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제 자신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제 영혼의 상처들은 제가 계명을 지키고 성신의 속삭임에 귀기울일 때 치유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








“오, 사랑스러운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와 첫번째 시현

 랜 세월 동안 말일성도들은 조지 맨워링이 가사를 썼던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라는 영감 받은 찬송가를 고귀하고 깊은 느낌으로 불러왔습니다. 이 거룩한 노래의 가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참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영혼을 전율시켰습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이 가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오 사랑스러운 아침
밝게 비쳐주는 해
별과 새들 노래하니
은 숲이 음악이었네

그늘진 숲에서 요셉
하나님 찾던 그 때

무릎 꿇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할 때
죄의 능력 엄습하여
그의 낙담 컸으나
굽히지 않고 믿었네
하나님 보호하심

낮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내려와
영광스러운 빛 기둥
그의 주위 비쳤네

그 중에 나타난 두 분
하나님과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의 말
들으라는 기쁜 말씀
응답된 요셉의 기도
귀를 주께 기울였네
살아 계신 하나님 본
큰 기쁨이 넘쳤네.
(찬송가 24장)

이 찬송가에 묘사된 대로 요셉 스미스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간구한 기도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첫번째



하 침 ! ”

칼로스 이 에이시 장르 칠십인 정원희 명예 총관리 역원

그림: 알 리운즈, 성스러운 숲

시현으로 알려진 놀라운 사건을 초래했습니다. 그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지상에서의 짧은 성역 기간 동안에 받았던 많은 시현 중 첫번째 것이었으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이 말했던 만유가 회복될 시기인(사도행전 3:18~21 참조) 때가 찬층만한 경륜의 시대를 인도했던 일련의 사건 중 첫번째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고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30)가 세워지도록 이끈 여러 가지 영적인 사건 중 첫번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은 세상을 가득 채

우[게 될 때까지]”(교리와 성약 65:2) 굴러 퍼지도록 정해진 세계적인 변화의 시작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은 형태 면에서 보면 인류 역사상 첫번째 시현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와 닮[은]”(모세 1:6) 하나님의 한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사탄의 암흑에 대해 배웠으며, 인간의 현 상태와 대조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배웠습니

다.(모세 1:2~20 참조)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나타렛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결과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간증했습니다.(사도행전 26:9-23 참조) 하늘의 시현에 대한 바

1820년에 주어진 것으로 묘사된, 거룩한 숲에서 받은 첫번째 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도록 이끈 여러 가지 영적인 사건 중 첫번째 것이었습니다.

열네 살인 요셉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 때의 이 글처럼 나의
 마음속에 힘있게 임한 일은 없었습니다."
 (요셉 스미서 2:12)



그림: 대일 길보온, 요셉 스미스가 성경에서 직언을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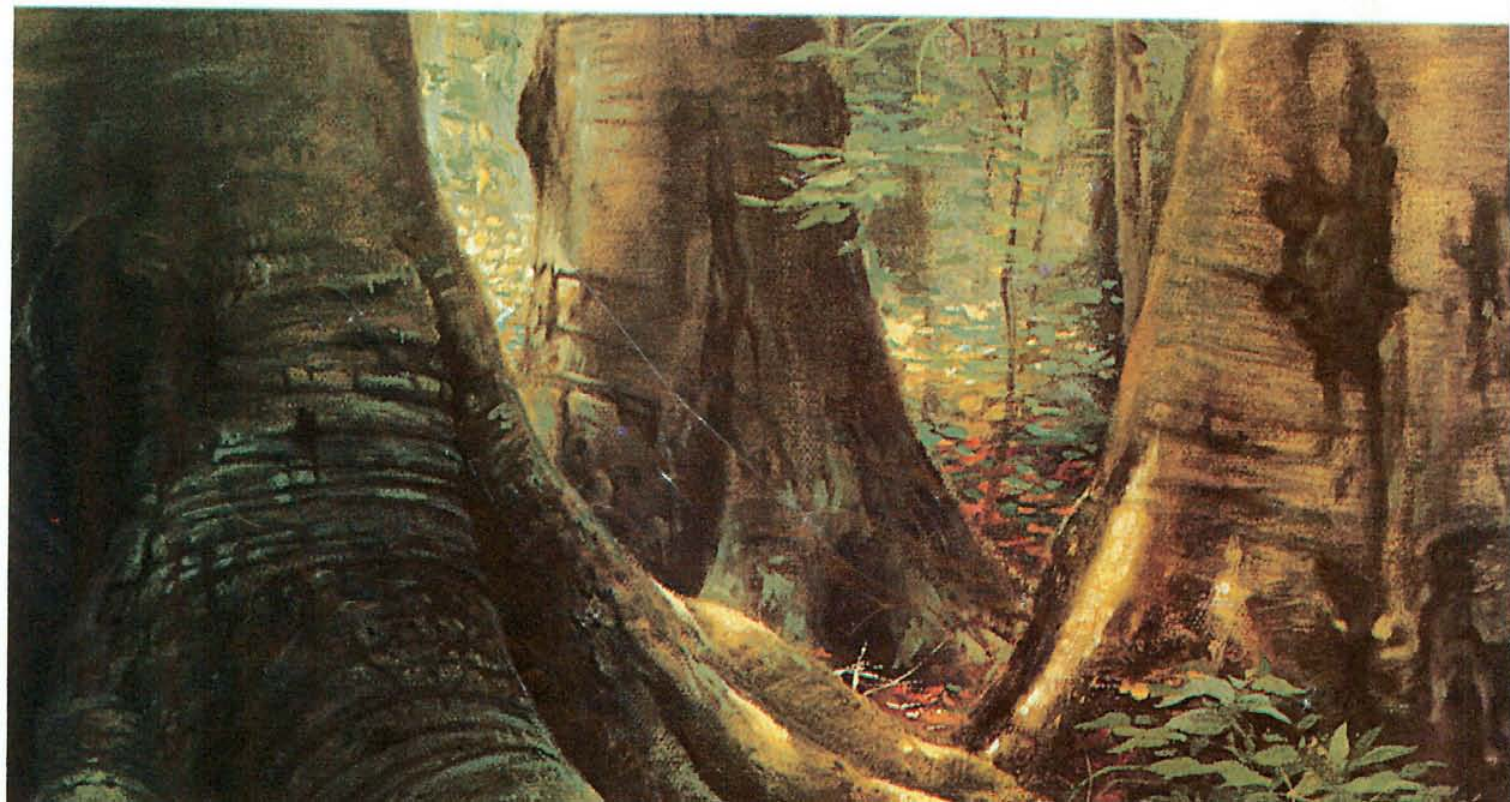
울의 설명은 아그립바 왕의 마음을 움직여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28절)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 하늘의 시현을 받은 이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개종으로 이끌었습니까? 리하이, 니파이, 엘마와 같은 다른 사람들도 하늘의 시현을 받았던 특권을 누린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

니다. 그렇게 주어지고 기록된 모든 시현은 당연히 영광스러운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신성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혹자는 1820년 봄에 뉴욕 주 팔마이라 근처의 작은 숲에서 주어졌던 그 시현을 통해 어떤 거룩한 목적이 성취되었느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은 이 중요한 사건을

둘러싸고 있던 상황을 이해할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의 긴 밤, 극심한 종교적인 동요,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분열, 하늘의 일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갈구하는 평범한 농사꾼, 이외의 다른 독특한 상황들은 예언자 요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드라마로 들어서는 무대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고귀한 첫번째 시현을 통해 밝혀진 귀중한 진리와 그것을 통해 성취된 많은 목적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 논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요셉은 종교적인 문제들에 관한 의견의 혼돈 속에는 승자가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말다툼은 사탄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탄이 "분



쟁의 아버지”(니파이삼서 11:29)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목사가 목사를, 개종자가 개종자를 대적하게 함으로써 다툼을 일으키거나 실제보다 더 많은 호감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악마였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6 참조)

더욱이 요셉은 영에 관련된 중요한 의문은 종교 교사들이 똑같은 경전 구절을 그렇게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한 “성경에 의해서”만 답을 얻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2 참조)

2. 사탄의 힘과 어둠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자신의 혀를 굳어버리게 하고 자신을 감싼 암흑에 둘러싸이게 한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어떤 실체”

(요셉 스미스 2:16 참조; 15절도 참조)의 힘을 알았습니다. 이 힘은 악마가 사용한 것으로서, 그는 요셉 스미스를 자기가 거느리는 죄와 부정의 왕국을 위협할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보다 더 많이 사탄을 동요하게 만들고 괴롭힌 사람은 거의 없었고, 어둠의 권세들이 연합한 것을 그보다 더 많이 느꼈던 사람도 없었으며, 그보다 더 훌륭하게 사탄을 이겼던 사람도 없었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20 참조)

3. 빛과 진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혀를 굳어 버리게 하고 파멸할 것 같은 느낌을 일으키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동안, 수세기 전에 모세가 경험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

것은 하나님께 속한 빛과 자유와 비교되는 사탄의 어둠과 속박이었습니다.(모세서 1:10~15 참조)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 간구해 보리라는 결론을 얻고... 이를 실행해 보려고...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위해]...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13-14)

그림: 그렉 케어 올슨, 성스러운 숲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요셉 스미스 2:16-17)

“이 빛 기둥이 나타나자 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힘으로부터 풀려났음을
깨달았으며”(요셉 스미스 2:16~17)

“빛과 진리는 저 악마를 버리느니
라.”(교리와 성약 93:37) 새벽이 오면
밤이 사라지듯이 어둠의 권세는 빛의
권세로부터 도망칩니다.

4.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
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출
현을 본 요셉은 성경에서 증언한 그대
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
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
습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
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
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
다.”(요셉 스미스 2:17)

짧은 순간에 불과한 그 사건을 통하
여 하나님은 비인격체이며 무관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터무니없는
통념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영의 아버
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속성이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밝혀졌습니다.(히브리서 12:9 참조)

조지 큐 캐넌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직접 나타나심으로써 이 모든 [기독교계의 통념]을 한 순간에 쓸어내 버렸습니다... 한 순간에 모든 어둠이 사라져 버렸으며 이 지상에는 다시 한번 더 필멸의 상태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그 두 분에 대해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설교집, 24:371~372)

5.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 밝혀졌습니다.** 요셉은 잠깐 보고 몇 마디 말씀을 들음으로써 신화의 동일성에 대한 참된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잘못 인도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수세기 동안 혼란을 겪었던 교리였습니다. 세상의 보통의 아버지와 아들처럼 각각 다른 별개의 존재인 두 분이 요셉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은 마음과 목적에 있어 반박할 수 없는 완전한 조화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으며, 또 그 아들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것을 그대로 말씀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때 이 교리는 구세주의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을 만큼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비움은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

소서”(요한복음 17:20~21)

6. **당시의 교회 중 어떤 교회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묻고자 한 것은 내가 어디에 가입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알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신이 들자 곧 빛 가운데 계신 그분들께 어느 교파가 옳으며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는 대답을 받았으며... 모든 교파가 다 그르[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요셉 스미스 2:18~19)

이러한 선언은 처음에는 요셉을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족들은 특정한 교회에 가입해 있었는데, 그는 또 다른 교회에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요셉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7. **기존 교회들의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다른 교회에 가입하지 못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모든 교파가 다 그르며 그들의 신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며 그들의 교사는 부패하였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심히 멀도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 2:19)

그러한 것을 보고 들은 요셉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

는 교파에 가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어떤 교사들은 “겸손하여 그리스도를 [따랐겠지만]... 사람의 가르침을 좇는지라 여러 가지로 잘못을 범하[었습니다.]”(니파이이서 28:14)

공정한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누구에게든지 올바른 길을 가르칠”(니파이이서 25:28)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8. **야고보의 간증은 진실했습니다.** 요셉은 “야고보의 간증 즉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것이며 꾸짖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요셉 스미스 2:26)

또한 그는 19세기 초의 영혼도 모세 시대나 절정의 시대에 살았던 영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귀중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주님이 요셉의 겸손한 기도에 응하여 직접 모습을 나타내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신을 낮추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9. **요셉 스미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시현을 받은 삼 년 후,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과 그의 “이름이...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요셉 스미스 2:33)

물문경의 출판과 거룩한 신권의 회복,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 그리고 온 세상에 충만한 복음을 전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17)



그림: 로엘 브루스 베넷, 첫번째 시현

파하는 일을 통해 그러한 선언은 성취되었습니다.

10. 요셉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첫번째 시현을 받은 후 죽을 때까지 혹심한 박해와 욕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간증과 특별한 부름에 끝까지 충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25) 그는 38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여 자신의 피로 첫번째 시현에 근거한 그의 간증을 인봉했습니다.

이상의 것들과 다른 진리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10가지 진리들은 수세기 동안 인류를 영적으로 속박해 왔던 암흑과 배도의 긴 밤을 꿰뚫은 한 즐거이 강렬한 광선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빛줄기가 결합하여 거대한 예지의 빛을 마련해 주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올슨 프랫 장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

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오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인 존재로부터 주어진 한 순간의 지시가 영감을 받지 못한 인간들이 이제까지 기록한 모든 책보다도 더욱 가치있는 것입니다."(설교집, 12:354)

그 모든 일은 177년 전에 그렇게 조용하고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놀랍게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한 소년이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일어난 일은 당연히 인류를 위한 엄청난 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탐과 지금까지 발사된 모든 우주선도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과 비교하면 무색해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갈지라도 자신을 낮추어 기도하고, 회복의 예언자를 통해 계시된 진리를 염두에 두지 않는 한, 하나님을 찾거나 그분의 얼굴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요셉 스미스와 숲에서의 그의 기도 및 첫번째 시현을 뺀다면 우리는 여러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열거된 구원의 진리의 보물들과 더 많은 것들을 땅에 묻게 하며 "그리스도가 성역을 베푼던 당시부터 [첫번째 시현이]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시간까지 일어났던 사건 중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에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브루스 알 맥콩키, 물론 교리, 2판[1966년], 285쪽)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생애를 보냈고 또 위대하게 죽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35:3) 그는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습니다.(3절) 개인적으로는 예언자 요셉의 친구이자 요셉과 하이람의 수교를 목격했던 존 테일러가 기록한 이러한 찬사는 사실이며, 천국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감에 따라 매일매일 입증되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65:6 참조)

요셉 스미스가 겸손한 기도로 사랑의 하나님을 찾았던 1820년의 그 봄날 아침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자애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첫번째 시현을 통해 그 기도 에 응답해 주신 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놀라운 교통을 통해 주어진 그 빛과 진리의 덕을 보고 있는 우리는 그 주목할 만한 사건을 겪었던 이에게 참으로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방편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하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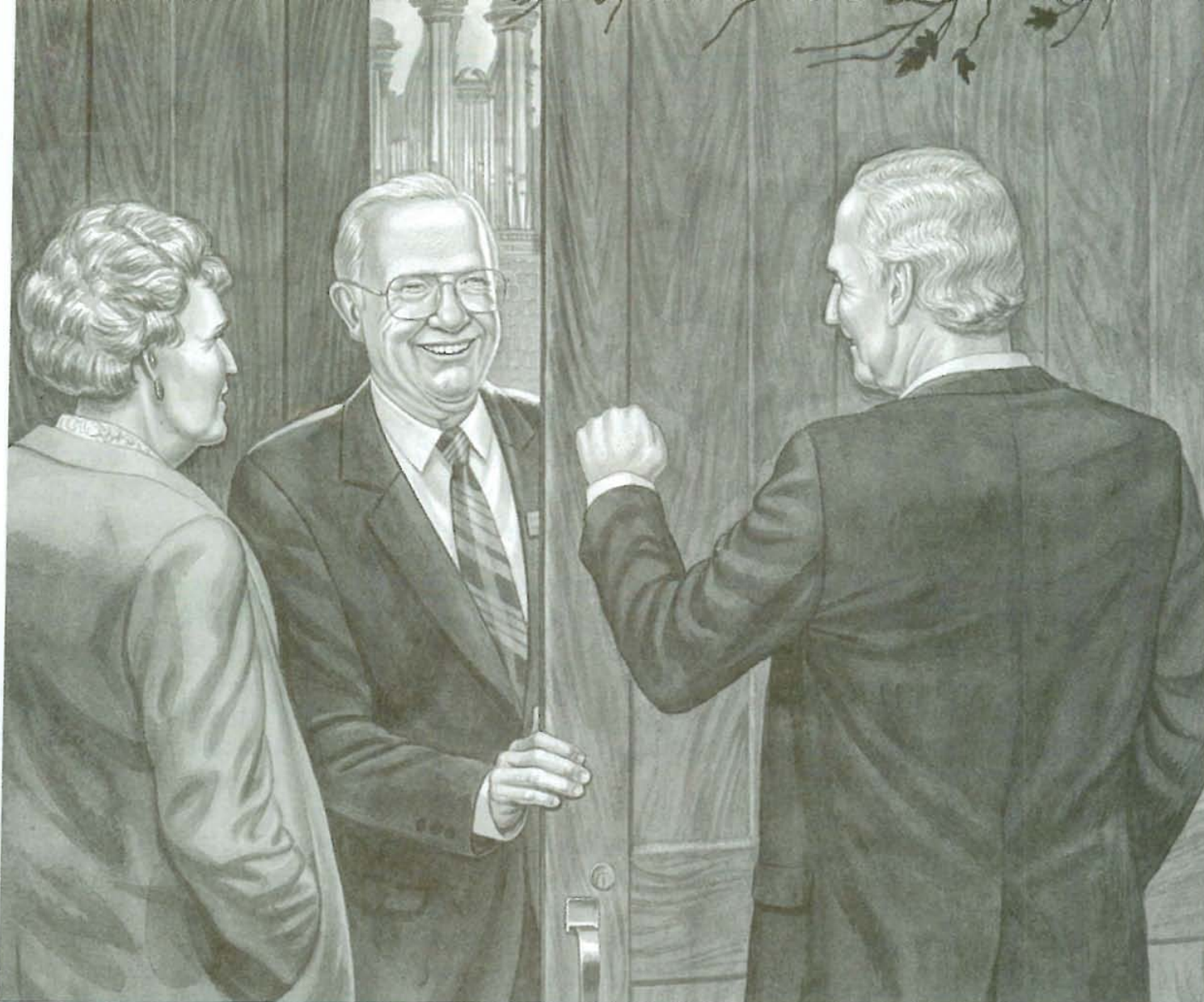


그림: 크리스토퍼 에이치 크릭

“하나님이 함께 계셔...”

휴가는 끝났지만, 기나긴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디앤 워커

노르웨이의 호슬레에 사는 도르와 솔보르 토르게슨 부부는 1993년 11월에 공무로 미국에 출장간 적이 있었는데, 귀국하기 전에 잠시 짬을 내어 휴가를 즐기기로 하였다. 두 사람은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세 곳의 방문 예정지 중 하나인 솔트레이크시티에 들러 물론 태버나



클 합창단의 노래를 듣기로 하였다.

당초 예정했던 세 곳 중 두 곳을 들르고나자 휴가 기간이 거의 끝나고 말았다. “우리가 귀국하기 전에 솔트레이크를 들려야 된다는 어떤 음성이 계속 들렸습니다.”라고 솔보르는 말한다.

태버나클 합창단이 금요일에 연습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토르게슨 부부는 비행기를 타고 금요일 저녁에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였다. 남은 휴가 기간을 생각해 볼 때, 금요일 밤이 미국에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되었다. 도르는 이

렇게 회상한다.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는 즉시, 우리는 바로 렌트 카를 빌려 템플 스퀘어로 달려갔지요. 서둘러서 태버내클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더군요.” 태버내클의 문이 잠겨 있었던 것이다.

“밤이 깊었지요.”라고 도르는 말한다. “그래도 우리는 노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노크가 아니라 문을 주먹으로 요란하게 두들겼지요. 웬지 몰라도, 안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태버내클 안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그 사람은 템플 스퀘어의 선교사인 윌머 테일러 장로였다. 그는 토르게슨 부부를 친절하게 안으로 맞아들이고 적막감이 감도는 태버내클의 내부를 구경시켜 주었다. 합창단은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에 연습을 한다고 알려 주었다.

“다음 목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답니다.”라고 솔보르는 애원하듯이 말하였다. “저희들이 타고 갈 비행기가 내일 노르웨이로 떠나기 때문에, 합창단이 연습하는 노래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 왔답니다!”

테일러 장로는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난감하여 토르게슨 부부가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오면 잠을 내어 템플 스퀘어를 구경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상쾌한 가을 아침에, 솔보르와 도르는 난생 처음으로 성전, 개척자, 모로나이 및 몰몬경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구경이 끝나자, 두 사람은 태버내클에 다시 들러 태버내클의 역사적인 건물에 대한 얘기를 더 들었다. 그들이 태버내클을 떠나려고 하자, 태버내클 합창단의 녹음 음악이 들려왔다. “합창단의 녹음된 음악 소리를 듣는 바로 그 순간 뭔가 정곡에 찔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솔보르는 회상한다. “저는 주저 앉아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처럼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은 아름다운 음악에 압도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느낀 것을 그에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테일러 장로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께 성령이 임하셨군요.’”

“저는 합창단이 부르고 있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라고 솔보르는 말을 이었다. “먼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다음에는 이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보르와 도르가 성전을 떠날 무렵, 오전 11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두 사람이 서둘러 떠나려고 하자, 테일러 장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책으로 선교사를 보내드릴까요?”

솔보르와 도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라고 대답하였다. 두 사람은 선교사가 방문할 주소를 건네 준 후, 아직도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기분을 안고 태버내클을 떠났다.

두 사람의 의문을 잔뜩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받은 책자, 즉 몰몬경과 선교사용 소책자 몇 가지 및 기이한 업적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오슬로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다. 1996년 1월 10일에 두 사람의 장로들이 그들의 집 문을 두드렸다.

첫번째 방문에서 랜던 우라이트 장로와 커트 엘리스 장로는 솔보르와 도르가 제기한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다. 두 선교사는 그 후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 도르와 솔보르는 선교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복음의 진리를 배우면서 그들은 크나큰 감동을 받았다. 요셉 스미스가 본 첫번째 시현을 배우면서 그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저는 요셉 스미스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습니다.”라고 솔보르는 말한다. “요셉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참으로 이상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35년 전, 첫 아이를 낳기 전의 어느 긴 밤이 기억납니다. 그날 밤 아이를 출산하는 성스런 경험을 하는 동안, 제 아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기가 곧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제발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침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심각한 의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는 제가 들은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느낀 절망감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약몽에서 벗어나자, 솔보르는 요셉 스미스가 본 첫번째 시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고 장로들이 요셉 스미스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보았으며 두 분이 요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알기 35년 전부터 저의 개종이 실제로 시



사진 제공: 도르와 솔보르 터게슨 부부

토르게슨 형제 부부(맨 오른쪽)가 노르웨이 오슬로 스테이크 샌디비카 와드의 회원과 함께 스톡홀름 성전(위쪽) 과 집에서 찍은 사진(오른쪽)

작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오래 전에 제게서 떠나가 버린 저의 아기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솔보르는 부활절이 되기 전에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하였다. 도르는 침례를 받겠다는 약속을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는데, 장로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자매님과 함께 침례를 받지 않으려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는 아침 11시까지 아내와 함께 저의 침례 문제를 의논하였습니다.”라고 도르는 회상한다. “저는 잠시 혼자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밤 중에 밖으로 나가서 자동차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였지요. 기도를 거듭한 결과 침례를 받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두 시간 후에 제가 원했던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침례를 받아서는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르와 솔보르는 1994년 4월 17일에 침례 받았다. 일년 후에 두 사람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36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아기 로베르트도 그날 부모에게 인봉되었다. “저는 이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솔보



사진 촬영: 제넷 토마스

르는 말한다. 로베르트는 영으로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보르는 처음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고 나서 느꼈던 소감을 이렇게 회상한다. “쌀쌀한 11월에 템플 스캐어를 걷고 있을 때, 저는 전혀 새 사람이 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관광객의 신분으로 템플 스캐어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 곳을 떠날 때는 몰몬이 되어 있었습니다. 테일러 장로님은 그날 아침에 태버내클에서 저를 감동시킨 것은 바로 성령이었다고 얘기를 하였지요. 남편은 성령이 아니라 음악이 감동시켰다고 했어요. 두 분 얘기는 모

두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지요. 그 도구는 다름아닌 음악이었던 거예요.”

솔보르와 도르는 이제 합창단이 처음 불러준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알고 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찬송가, 74장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이었다. 그 이후부터, 두 사람은 여러 가지 태버내클 합창단의 노래를 모아 음악 서재에 보관하고 실제로 공연하는 합창단의 노래를 들었다. 하지만 합창단이 부를 수 있는 곡이 아무리 다양해도, 처음에 들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찬송가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만큼 그들의 인생에 심오한 영향을 준 노래는 앞으로 도 없을 것이다. □

불굴의 매리 앤

렉스 지 젠슨

시련과 고난을 무수히 겪은 매리 앤은 자신이 살던 시대의 온갖 고초를 신앙과 결연한 자세로 이겨냈다.

말 일성도 개척자인 매리 앤 앤겔 영은 하나님과 복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련을 의연한 자세와 인내와 굳건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앤은 복음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늘 한결같았기 때문에, 박해가 아무리 드세고, 심한 고생을 하며, 질병에 시달리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생사를 헤매는 고초를 겪고 있을지라도, 그녀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

“하나님의 남자”와 결혼함

매리 앤은 1803년 뉴욕 주 온타리오 군 세네카 마을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 가족이 로드 아일랜드 주의 프로비던스로 이

사한 후, 매리 앤은 침례교의 회원이 되어 성경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앤은 경전, 특히 예언의 말씀 연구에 심취한 나머지 예언이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앤은 ‘하나님의 남자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앤이 간절하게 소망하던 축복은 그로부터 수년 후 회복된 복음에 개종하고 난 직후에 이루어졌다.

1830년, 매리 앤은 토마스 비 마쉬 장로의 섭리의 회복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몰몬경을 알게 되었다. 앤은 그에게 성스런 경전 한 권을 부탁하였다. 그 책을 입수한 후, 그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 책에 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앤이 몰몬경을 손에 들면 영이 몰몬경의 출처 및 기원에 대한 사실을 너무나 진솔하게 증거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후부터 몰몬경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고 여러 차례 간증하였습니다.”라고 앤의 자서전 기록자인 에미라인 비 웰즈가 기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믿는 매리 앤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의 시련을 덜어주기 위한 희생적인 봉사로 나타났다.



그림: 마틴 퍼듀스





브리감 영이 위독한 질병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인 매리 앤의 간호와 영감에 의한 치료 때문이었다.

2년 후 매리 앤은 뉴욕 주로 가서 새 종교를 직접 확인하였다. 팔마이라 부근에 친구들을 방문 중이었던 앤의 부모들은 그녀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으나 편지마다 그녀를 만족시켜 줄 만큼 새로운 신앙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앤은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갔다. 앤과 부모는 거기서 회복된 복음을 같이 듣고 받아들인 다음, 브리감 영의 처남인 존 피그린 장로에게서 침례를 받았다.

앤의 부모는 1833년 오하이오 주의 성도들과 같이 집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매리 앤은 혼자서 커틀랜드로 갔다. 거기서 30살이 다 되어 앤은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하나님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브리감이 영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앤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이끌리는 것을 느끼고 그를 매우 존경하게 되었다. 그가 그녀에게 자기의 아내가 되어 줄 것을 청하자, 앤은 그가 자신의 참다운 배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의 느낌이 들어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구혼을 받아 들였다.³

브리감이 구혼을 한 지 얼마 안되어 두 사람은 1834년 2월 18일에 결

혼을 하였다. 이것은 브리감의 첫번째 아내인 미립 워크스가 그와 두 명의 어린 딸을 남겨두고 죽은 지 2년 후의 일이었다. 브리감은 자신의 일기에 매리 앤이 자기의 자녀들을 거두고, 집안을 가꾸며, 가족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충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기록하였다.⁴

고난의 플무

갓 결혼을 한 두 사람은 이미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얼마 안가서 과거보다 더욱 위험스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매리 앤이 가정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자 마자, 브리감은 오하이오 주와 미주리 주에서 폭도들의 소요가 더 커지기 전에 시온 진영의 행군을 위해 예언자를 따라 나서야 했다.

1837년 12월에 요셉 스미스는 나무에서 가지를 치듯 약 40명의 배도자들을 교회에서 파문하였다.⁵ 이 같은 파문 조치로 브리감에 대한 폄박, 신체적인 위해 및 살해의 위협이 뒤따르게 되었다. 그 이유는 브리감이 대담하게 불평분자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예언자를 옹호하였기 때문이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브리감은 12월 22일에 커틀랜드를 탈출하였다. 그 후 얼마 안되어 요셉과 나머지 신앙심이 깊은 회원들은 커틀랜드를 떠났다.

그 해 겨울에 매리 앤과 다섯 자녀들은 배도자들에 의한 테러에 시달리며, 숨어있는 브리감을 찾는답시고 온 집안을 뒤지는 그들의 횡포에 떨면서, 자력으로 살아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배도자들이 위협을 하기도 하고 형언하기 어려운 욕설을 퍼붓자, 매리 앤은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건

강이 크게 쇠약하게 되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⁶라고 그녀는 후일에 자신의 자서전 기록가에게 말하였다.

폐병을 앓게 된 매리 앤은 1838년 2월에 아이들과 폭도들이 미쳐 앓아가지 못한 남은 재산을 모은 다음, 남편과 합류하기 위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미주리 주 리치먼드로의 길고도 험난한 여행을 시작하였다. “브리감은 아내의 쇠약한 모습에 크나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대뜸 이런 탄식의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무덤에 들어갈 때가 다 된 사람같구려.’”⁷

이제 브리감은 매리 앤의 건강 회복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도 매리 앤이 간호와 보살핌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1838년 4월 17일에 요셉 스미스는 브리감을 교회의 막중한 책임에서 일시적으로 해임하여야 한다는 계시를 받고 브리감이 가족과 병져 누운 아내를 돌보는 데 전력을 다할 수 있게 해주었다.⁸

그처럼 고택다운 휴식도 오래가지 못했다. 성도들과 미주리 주 주민들간에 긴장과 적대감이 고조되어 마침내 1838년 10월에 교회 회원들은 집에서 다시 쫓겨나야 했다. 그래서 1839년 2월에, 영의 가족과 800명의 기타 성도들은 미주리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겨울의 추위를 무릅쓰고 일리노이 주로 피난처를 찾아 나섰다. 마차와 가축을 몰수 당하였기 때문에, 변변히 가진 것도 없는 성도들 대부분은 걸어서 가야했다.

험난한 대이동의 시기에, 브리감 영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강행군을 하며, 밤이면 잠자리를 찾아야 했으며, 그러다가 성도들 가운데 노약자와 고아를

돌보기 위해 왔던 길을 되돌아 와야 했다. 매리 앤과 자녀들은 3개월간의 시련 기간중 11개의 진영에서 지내야 했다.

겨울에 강을 건너서

매리 앤이 아이오와 준주의 몬트로즈에서 엠마 로즈를 낳고 10일 후인 1839년 9월 4일에 남편은 영국 선교부로 다시 선교사 부름을 받았다. 브리감은 앓고 있었기 때문에 부축을 받지 않으면 걸을 수 없었다. 그의 온 가족 역시 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브리감과 가족이 슬픈 이별을 하면서, 매리 앤은 영 장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가셔서 선교사 임무를 마치도록 하세요. 주님은 당신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저는 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⁹ 앤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으며, 떠나는 남편을 전송할 용기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였다.

나부와 몬트로즈 사이를 흐르고 있는 미시시피 강은 폭이 1.6km나 되었다. 매리 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작은 보트를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야 했다. 1839년 11월 말 어느 날, 매리 앤은 말라리아에 걸려 신음을 하고 있었다. 굶주린 아이들은 밥을 달라고 울어댔다.

매리 앤은 누덕 누덕 기운 담요 하나를 보트에 던진 다음, 또 하나의 담요로 자신과 젖먹이 아기인 엠마 스미스의 몸을 감쌌다. 겨울 폭풍이 몰아쳤다. 북서풍이 맹렬한 기세로 강 건너쪽에서 불어왔다. 매리 앤은 얇디 얇은 면으로 지은 옷과 솔을 입고 바람에 일렁거리는 물결을 헤치고 노를 저어 나갔다. 그러나 물결로 인해 앤과 아기의

몸은 흠뻑 젖고 말았다.

마침내 매리 앤은 나부에 당도하여 친구를 찾아갔다. 친구는 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앤은 앨리스를 안고 저의 집에 들어왔는데, 추위와 굶주림으로 기진맥진해 있더군요. 몸에서는 물이 툭툭 떨어지구요.”라고 친구인 자매는 기록하였다. “저는 앤에게 저의 집에 있으라고 하였지만,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하면서 집에 굳이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가 옷도 변변히 입지 못하여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앤은 십일조 사무실에 찾아가서 몇 개의 감자와 밀가루를 조금 얻어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앤은 변변치 않지만 얻은 식량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앤은 학질과 열 때문에 몸이 허약할 대로 허약해졌지만 보트가 있는 강둑으로 가서 노를 저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¹⁰

자비의 천사

브리감 영이 영국에서 돌아온 후 성홍열이라고 여겨지는 병에 걸렸다. 그때는 겨울이었다. 가족은 문 대신에 담요를 입구에 쳐놓은 통나무집에 살고 있었다.

브리감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병에 걸린 지 18일째만에 열이 내렸을 때, 저는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호흡도 멈췄고요. [매리 앤]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더군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앤은 장뇌유 한 줌을 제 얼굴에 바르고 눈에 넣었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코를 잡더니 자기의 입을 제 입

위에 덮고 인공 호흡을 하여 저의 허파에 공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의 허파가 활동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였습니다.”¹¹ 현재 인공 호흡으로 알려진 보편화된 방식인 이 치료법은 20세기에 가서야 알려지거나 실시된 것이다.

나중에 브리감은 나무에서 가족을 위해 새 집을 지었다. 날로 번창해 가는 나무 시는 어느 정도의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성도들을 배척하는 기운이 일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한 겨울에 정든 집에서 다시 쫓겨나게 되었다.

서쪽으로 가는 길에, 매리 앤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재능을 곧 잘 발휘하였다. 그녀는 토마스 엘 케인을 정성스럽게 간호하여 건강을 되찾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있고나서, 토마스는 성도들과 기타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앤은 엘리자 알 스노우의 병도 낫게 해주었다.

네브래스카 주의 윈터 쿼터즈에서 “매리 앤은 매우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야영지의 거의 모든 통나무 집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식량은 거의 바닥이 나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집마다 형편을 조사하여 약품을 주고 간호를 하는 등 자신의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매리 앤이 베푼 행위에서 자비로운 천사와 같은 일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¹²

매리 앤은 1847년 봄에 남편과 같이 솔트레이크 대계곡으로 가지 못했다. 그녀는 뒤에 남아서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을 돌보았다.

영 대관장은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

착하여 3주가 지난 다음, 가족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의 가족 모두가 1848년 9월 20일에 유타 주에 있는 새집에 도착하였다.

그의 가족은 지나간 날에 겪은 고난과 시련에 대해 옛말을 하면서 여러 해 동안 안정과 번영을 누렸다. 가족은 이렇듯 평화스런 생활을 누리고 있었지만, “매리 앤은 이웃을 보살피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누구든 그녀를 찾아가면 빈손으로 떠난 사람이 없었습니다.”¹³

매리 앤은 6명의 자녀를 낳고 두 명의 양녀들을 키웠다. 그녀의 아들 브리감 영 이세는 사도가 되었다.

매리 앤은 남편보다 5년이나 더 오래 살았다. 1882년 6월 27일에 그녀가 죽기 2년 전에 그 동안 고생으로 얻은 지병 때문에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녀는 참기 힘든 고통을 인내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숭고한 자세로 이겨냈습니다.”¹⁴

평생 동안 온갖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녀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한결 같았다. 앤은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명랑하고 활기가 있었으며,”¹⁵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¹⁶ 한결같이 순응하는 자세로 시련을 이겨냈다.

앤이 것처럼 강인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의 간증 때문이었다. 기회만 있으면 앤은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브리감 영은 그의 적법한 후계자임을 알고 있다고 간증하였다. 앤은 생전에 지도자들이 말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그것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이것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감의 힘과 천사의 방문으로 전해진 영원 불변의 복음이라는 간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¹⁷ □

주

1. 케이트 비 카터, 편찬자, *개혁자의 유산*, 20권[1958], 1:420
2. 에미라인 비 웰즈, “매리 앤 앤젤 영의 자서전,” *청소년 인스트럭터*, 1891년 1월 1일자, 17쪽
3. 같은 책
4. 레오날드 제이 애링턴, *브리감 영: 미국관 모세* [1985], 37쪽
5. 같은 책, 61쪽
6. 같은 책
7. 웰즈, “자서전,” 19쪽
8. *교회 정사*, 3:23
9. 에미라인 비 웰즈, “매리 앤 앤젤 영의 자서전,” *청소년 인스트럭터*, 1891년 1월 15일자, 56쪽.
10. 같은 책, 57쪽
11. 엘덴 세이 와트슨, 편집인, “브리감 영의 역사 원고,” *청소년 인스트럭터*, 1891년 1월 15일, 56쪽
12. 에미라인 비 웰즈, “매리 앤 앤젤 영의 자서전,” *청소년 인스트럭터*, 1891년 2월 1일자, 94쪽
13. 같은 책, 95쪽
14. 같은 책
15. 에미라인 비 웰즈, “매리 앤 영부인의 자서전,” *우먼즈 엑스포넌트*, 1908년 5월 9일, 66쪽
16. 에미라인 비 웰즈, “지나간 시절의 말일성도 여성,” *우먼즈 엑스포넌트*, 1887년 9월 15일자, 59쪽
17. 에미라인 비 웰즈, “매리 앤 영부인의 자서전,” *우먼즈 엑스포넌트*, 1887년 9월 15일자, 59쪽

진리를 깨달음

“또 성신으로써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작용에 대하여 알게 하시나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알게 하사”(교리와 성약 46:16)

많은은 좋지 않은 영향력이 만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성신의 은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영향력인가?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성신의 은사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작용”의 은사이다. 이 은사는 그 영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깨닫도록 도와준다.(하이람 스미스와 제인 엠 쇼달, 교리와 성약 주해서[1957년], 274~275쪽 참조) 여러 가지 작용의 은사는 성신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을 알게 해준다. 이는 또한 잘못된 경전 해석을 알아 내고 참된 원리들을 속이거나 이간시키려는 영향력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는 권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몇몇 교회 회원들이 있었으며 거짓 교리를 가르치던 사람들도 있었다. 많은 회원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고 혼란과 죄에 빠지게 되었다.(조셉 필딩 스미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1976

년], 201~203쪽 참조)

그 무렵,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계시를 받았다. 그는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성령이 그들에게 증거해 줄 것이며 “악령이나 악마의 교리나 인간이 만든 계명으로 말미암아 피임”(교리와 성약 46:47)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알게 되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여성이 되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볼 수 있으며 그 인기가 무가치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위치가 인기와 전혀 무관하다 해도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엔사인, 1978년 8월호)

외딴 지역에 살면서 친구를 몹시 사귀고 싶어하는 한 자매가 있었다. 그녀는 한 교회 지도자를 비방하는 이웃이 종종 자기 집에 오는 걸 열렬히 환영했다. 얼마 후에 이 자매는 그 친구의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생각에 자신이 설득 당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어느 일요일, 그녀는 그 친구가 잘못이며 위험스럽게도 자신의 간증도 스스로 잃어 가고 있다는 영의 충고를 느꼈다. 그녀는 그 시간에 경전과 더욱 친숙하여 그 속에서 화평과 신앙을 찾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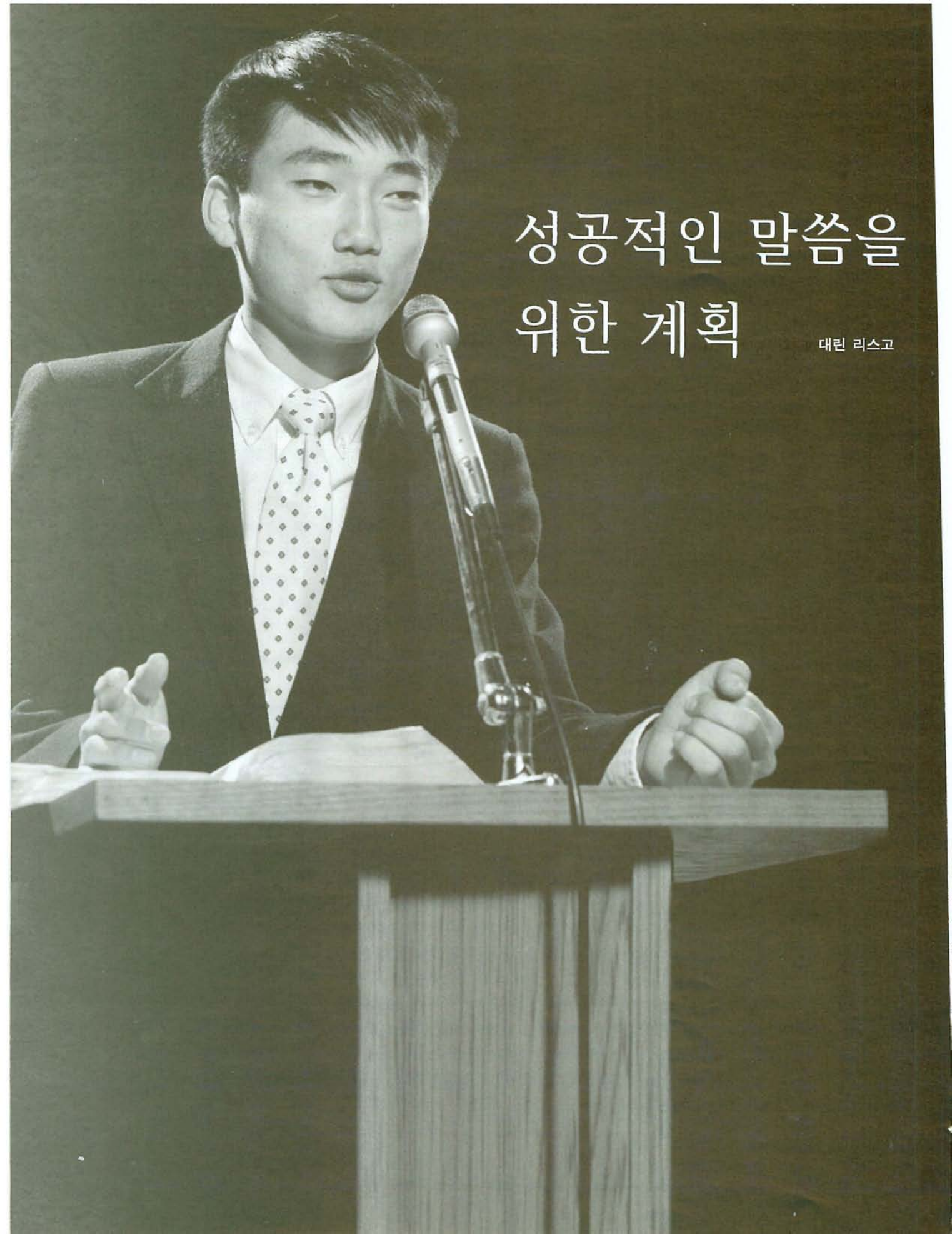
결심했다.

교리와 성약 46편 8절에서 주님은 이와 같은 영적 은사들을 구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속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속임수를 피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고 그런 다음 행하도록 우리를 가장 잘 도와주는 특별한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이다.

• 어떤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왜 중요한가?

•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도록 영은 어떻게 도왔는가? □





성공적인 말씀을
위한 계획

대린 리스고

노는 건물이나 긴 다리와 마찬가지로 **노**로 훌륭한 말씀도 주의 깊은 계획을 요한다. 효과적인 연설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지만 약간의 노하우(특정 기술)와 알맞은 연장만 있다면 잘 짜여진 말씀을 준비하여 전할 수 있다.

주제 선택

어떤 주제가 주어졌다면 그 주제만 가지고 얘기하도록 한다. 그러나 자신이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면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한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주제들이 적당하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이 말씀에는 영적으로 고무되는 것이 있는가?
- 좋아하는 성구나 경전 이야기, 또는 나를 이끌어 주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복음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가?
- 지나치게 사적인 것을 제외한, 회중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가르침을 줄 만한 영적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 내가 개인적으로 더 알고 싶은 복음 주제는 무엇인가?
- 어떤 연령층이 참여할 것인가?
- 내게 할당된 시간은 얼마 동안인가?
- 내가 다루기에 가장 편한 복음 주제들은 무엇인가?
- 특정 시기나 절기에 관련된 것을 얘기할 수 있는가?

목적 설정

여러분의 말씀에서 회중들이 꼭 배

우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정하든 간에 여러분이 얘기하는 모든 것은 목적과 초점이 맞아야 한다.

자료 수집

선택한 주제를 놓고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한다. 인용문, 실례, 주요 질문, 기사들 내지는 기타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을 적는다. 다음의 몇 가지 자료들도 참조해 본다.

- 성구. 빨리 찾기 위해 경전에 나와 있는 도움말을 이용한다.
- 기타 복음 서적 및 성도의 벗
-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자신의 일지를 찾아보고 기억을 되살린다.
- 친구나 가족의 경험. 여러분이 인용할 내용들이 사실인지를 확인한다.

자료 정리

가장 훌륭한 말씀은 단순하며 잘 조직된 것이다. 모든 자료를 가려내어 개념별로 짜 맞춘다. 그 개념들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재 배열하고 시간상 넣을 수 없는 내용들은 빼 버린다. 개념들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주된 요점을 얘기하는 데에 시간을 주로 쓰도록 한다. 다음 사항들이 말씀의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단순한 말로 말씀의 목적을 얘기하면서 시작한다. 솔직하되 재미있게 얘기한다. 회중들의 집중을 위해 창조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 이상한 방법으로 주의 집중을 꾀한다든지 또는 비적절한 농담의 사용을 피한다.
- 말씀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뒷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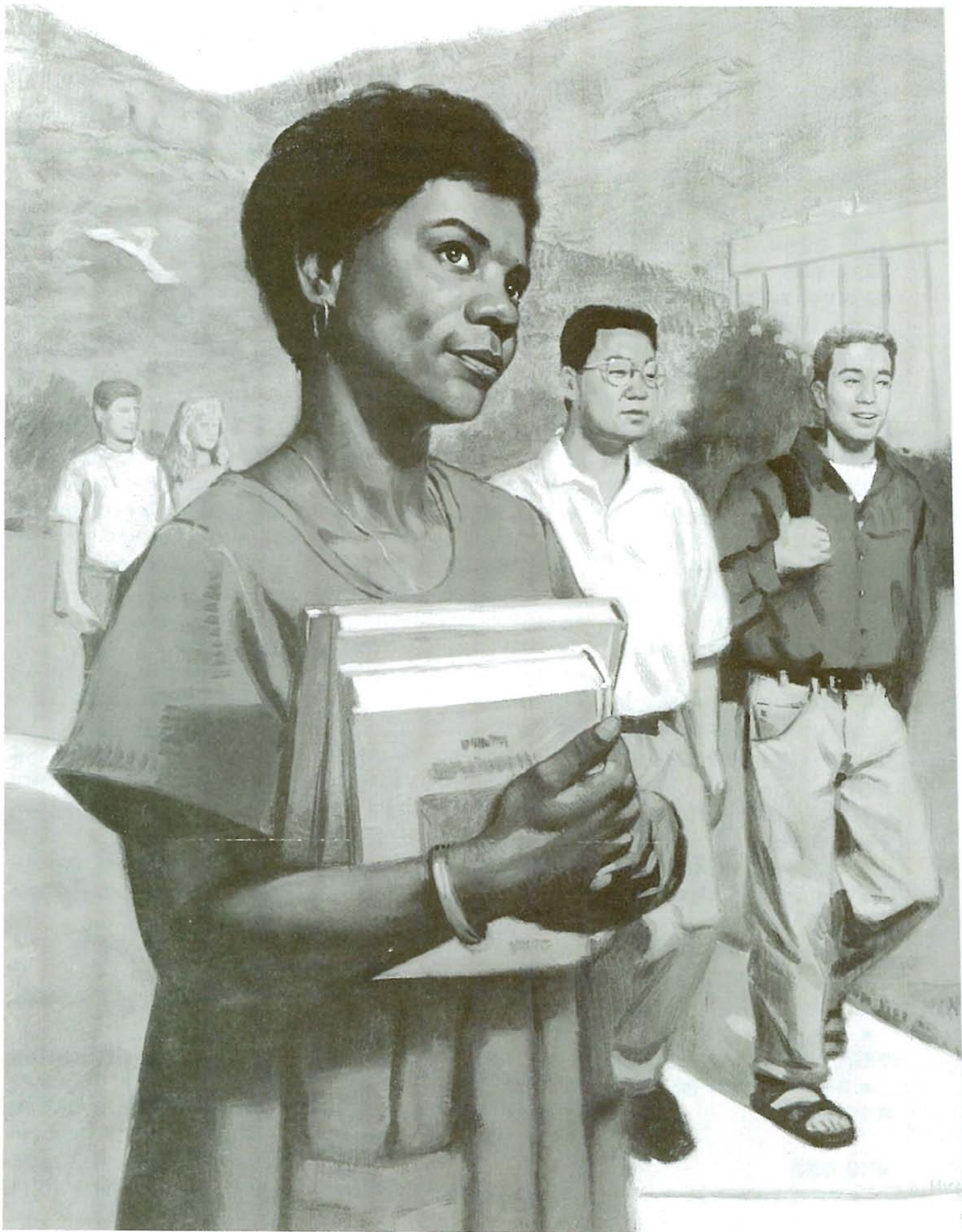
침해 주는 이야기나 성구들로 주제를 전개시킨다. 각각의 요점은 당연히 앞의 것에 따라야 한다.

- 성구를 인용할 계획이라면 그것들을 카드에 옮겨 적거나 쪽 표시를 해 두어서 단상에서 찾느라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한다.
- 목적을 다시 한번 얘기함으로써 말씀을 마감한다. 이 때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에 대해 간증한다.
- 친구나 가족이나 거울 앞에서 말씀을 연습해 본다. 말씀에 걸리는 시간을 재어 보고 필요에 따라 말씀의 길이를 줄이거나 늘린다.

서서 말씀을 함

다음 사항들은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섰을 때의 상황이다.

- 똑바로 서 있다.
- 천천히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말한다. 마이크가 있을 경우에는 마이크에 대고 얘기한다.
- 가능한 한 회중들을 쳐다보면서 얘기한다. 여러 방향에 있는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도록 한다.
- 말씀을 잘하지 못했다는 사죄를 하지 않도록 한다.
- 긴장될 때는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한 후 계속한다.
- 내내 말씀에 집중한다. 사소한 것이라도 집중에 방해되는 일은 피한다.
- 말씀을 마칠 때에 기도에 더 적합한 “당신 아들의 이름으로...”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이라고 하도록 한다. □



기다렸던 성전 결혼

패트리샤 이 맥이니스

스년 전, 브리감 영 대학교를 졸업한 나는 고향인 미국 북동부의 메인 주 샌포드로 돌아가야 한다는 영의 속삭임을 들었다.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당시 스물일곱 살된 독신 여성이었던 나는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공부를 계속하거나, 또는 언론계에 종사하는 것을 가장 유망한 목표로 삼고 있었다. 메인 주에서 그런 기회를 찾는 것은 회의적이었다.

걱정은 되었지만, 주님께서 내가 그 곳으로 가기를 바라신다는 느낌과 함께 나의 노력을 방관하지 않으시리라는 희망을 품고 귀향길에 올랐다. 그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나는 어느 주간 신문사의 기자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기도를 통해 아주 빨리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렸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언제나 마음속에는 결혼을 목표로 두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교회 회원으로 자라온 나는 한창 데이트에 열중하던 십대 시절 내내 헤의 왕국의 결혼의 중요성을 배워 왔다. 나는 언제나 성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한해에도 수천 명의 젊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4년이란 시간을 보내면서도, 결혼할 기회는 내게 오지 않았다. 압도적으로 백인이 많은 대학에 다니는 한 흑인 학생으로, 결혼에 진지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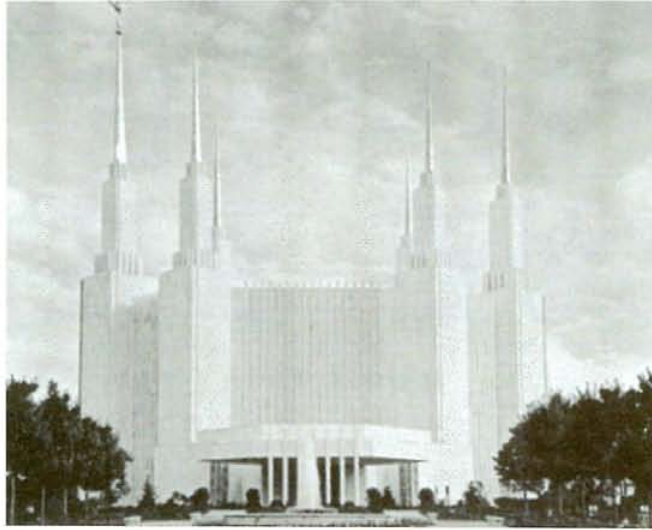
심을 나타내는 데이트 상대를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메인에서는 전혀 다른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 지역에는 말일성도인 남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제임스라는 교회 활동이 다소 저조한 한 젊은 남자와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아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간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나는 자주 주님께 그를 도와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간구했다.

제임스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나의 기도는 더욱 절박해졌다. 그는 교회를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지만, 일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지혜의 말씀에 따른 문제가 있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청혼을 했지만, 그런 상황속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제임스가 나의 반려자로 적합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더 이상 결정을 무한정 미루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제임스를 사랑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도 우리의 결합을 허락해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나는 나중에 성전 인봉을 받기 위해 함께 노력하리라는 생각 아래 그와의 일반 결혼에 동의했다. 그 결정은 달콤하면서도 괴로운 것이었다. 나는 제임스를 사랑했다. 하지만 우리의 결혼이 영원한 결혼이 아닌 현세만의 결혼이란 것이 좀처럼 쉽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그래도,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결혼 전날 밤, 잠자리



에 들자, 온갖 불안함에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다. 나는 신부들이 마지막 순간에 안절부절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서 들어 익히 알고 있었던지라, 내가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놀랍게도, 밤이 깊어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아침이 다가오면서 정신적 긴장은 더욱 심해졌다. 성전 결혼을 하지 않는 내 미래 생활의 여러 단면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혼자 교회에 다니는, 어쩌면 전혀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성전에 가기도 전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혼란스러움에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 결혼식 전 수 시간 전에 나는 감독님께 조언을 구했다.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신권 축복을 받으면서,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시켜서는 안된다는 영의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제임스와 내 자신의 깊은 비탄에도 아랑곳 없이, 나는 결혼식을 취소했다. 나는 슬픈 가운데 짓드는 평온한 영향력과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며칠 간을 나는 울며 자주 기도하며 겸손하게 상황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았다.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을 앞세우기 보다는 결혼하려는 내 바램을 먼저 내세웠음을 깨달았다. 영원한 결혼이라는 의로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신다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미리 포기하고 일반 결혼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스스로 믿게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 주님을 가장 앞에 세우겠다고 결심했다. 내 부족한 신앙과 그릇된 방향 감각을 뉘우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괴로움이 일순 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주님께서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비록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제임스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후에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제임스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 또한 자신의 인생에서 주님을 가장 앞에 세우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짐에 따라, 나날이 새롭게 변해가는 행복에 찬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고 나에게 워싱턴 성전에서 결혼할 것을 청했다.

지금, 제임스와 나는 메인 주의 샌포드 와드에 활동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에 몹시 놀란다. 난 주님이 나보다 크나큰 통찰력을 지니고 계시며 성전 결혼이 나에게 실현 가능한 현실이었음을 알고 계셨음에 매우 감사한다. □

물몬경을 함께 나눔

빅터 카말고

그림: 더클라스 엠 프레이어

나의 집은 아르헨티나에 있다. 이웃에 교회에 다니는 가족이 있었는데, 다른 이웃의 세 가족에게 물몬경을 나누어 준 일이 있었다. 나는 길 건너에 살고 있었던 탓에 물몬경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물몬경을 받은 가족들이 선교사에게서 복음을 배우는 것을 지켜 보았다. 누이 동생인 샌드라의 남자 친구도 복음 토론을 듣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샌드라에게 복음 토론을 같이 듣자고 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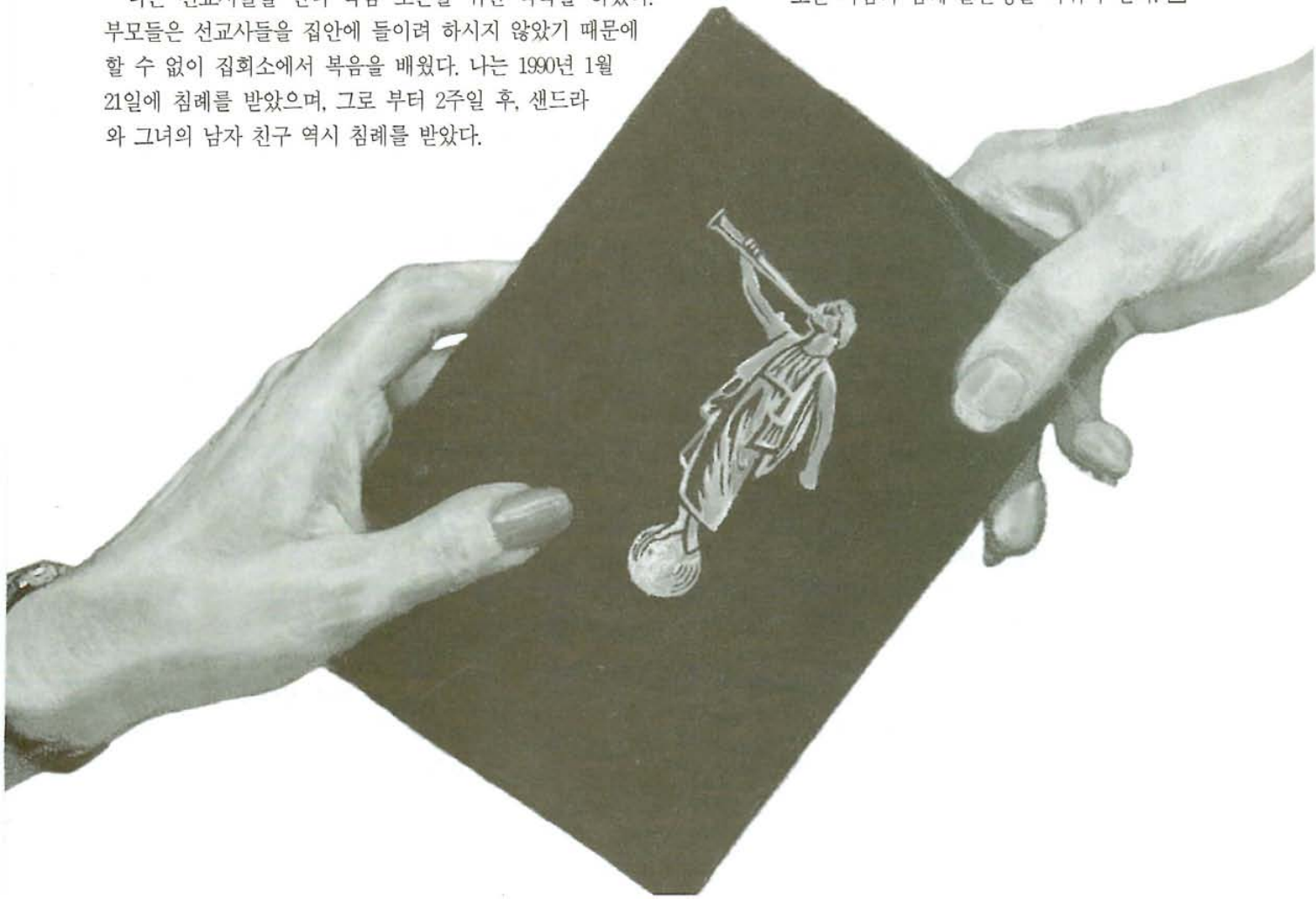
그들 모두가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자는 권유를 받았다. 샌드라는 나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였다. 교회 참석의 권유를 받아들인 것이 나의 인생을 180도 바꿔 놓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교회의 집회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반갑게도 오래전부터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선교사들을 만나 복음 토론을 위한 약속을 하였다. 부모들은 선교사들을 집안에 들이려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회소에서 복음을 배웠다. 나는 1990년 1월 21일에 침례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2주일 후, 샌드라와 그녀의 남자 친구 역시 침례를 받았다.

물몬경을 나눠주던 회원 가족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교회를 받아 들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들의 귀한 재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꺼이 나누려는 순종심이 강한 이웃 가족을 주신 주님에게 영원히 감사 드린다.

나눠 준 세 권의 물몬경 때문에 발생한 침례의 회수를 확인해 보았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구역에서만 16건의 침례가 있었다. 누이 동생인 샌드라와 나는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처음에 교회를 한사코 반대하셨던 나의 어머니는 내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침례를 받고 현재는 지부에서 상호부조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 이웃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 같은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나는 이 교회가 유일하게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물몬경을 나눠야 한다. □



집으로의 여정

제니퍼 갠트 엡서

남 동생. 크리스는 첫 데이트를 계 속하고 있었다. 대학에 다니고 있던 나는 어머니와 상의하고자 집에 내려왔고 크리스가 곧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끝까지 우긴 끝에 나는 동생과 몇 분간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고 그 후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다.

그것이 동생과 얘기한 마지막이었다. 그 후, 두 주도 채 되기 전에 자동차 사고로 크리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받고 나는 다시 집으로 와야 했다.

집으로 가는 3,200킬로미터의 긴 여정은 흥수처럼 밀려드는 동생과의 수많은 기억들로 채워졌다.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어머니와 갓난 아기 크리스가 퇴원하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3살 반밖에 안되었었지만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어머니는 동생을 위해 만든 노란 담요로 크리스를 싸안고 우리의 낡은 자동차 앞좌석에 타셨고, 나머지 가족과 함께 뒷좌석에 앉아 있던 나는 동생을 보기 위해 최대한 몸을 앞으로 수그러야 했다.

크리스가 다섯 살 때는 오빠와 함께 크리스의 금발 머리칼 외에는 온 몸을 화장지로 둘둘 말아 마치 이집트의 미이라처럼 만들기도 했다.

그 후, 일년쯤 뒤에 크리스는 내 흉내를 내면서 엄마, 아빠 침대에서 뛰어 내리다가 팔을 부러뜨렸었다. 어머니는 당장 그 나쁜 본을 보여 준 내게 잘못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나도 수궁을 하

고 그 후로는 더 좋은 누나가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렇게 했고 크리스는 정말로 나를 존경했다고 어머니는 말 씀하셨다.

오래지 않아 나도 동생을 칭송하기에 이르렀다. 대학의 첫 학기를 마치고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집에 왔을 때 나보다 몇 센티 더 커 버린 크리스를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동생이 존경스러웠다. 키 때문만이 아니었다. 크리스는 감동스런 청년으로 변모해 있었다. 크리스는 종종 자기의 영적 경험들을 얘기해 주었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의 어느 날 밤이었다. 크리스와 나는 집 앞에 서서 별을 보고 있었는데 너무나 맑고 아름다운 밤이어서 집에 들어가기가 아쉬웠던 우리는 이 지구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 때, 간증을 들려주는 크리스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지금도 기억이 난다.

크리스와 나는 친구처럼 지냈다. 의견이 언제나 일치했던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남매라는 사실이 늘 기쁨을 주었다. 나는 누나답게 신중히 행동했다. 춤추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수동식 자동차 운전법도 가르쳤으며 신사가 되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내가 운전 면허증을 딴 이후로는 크리스마스 선물도 함께 사러 다녔으며 세상의 온갖 것들에 대해 얘기하곤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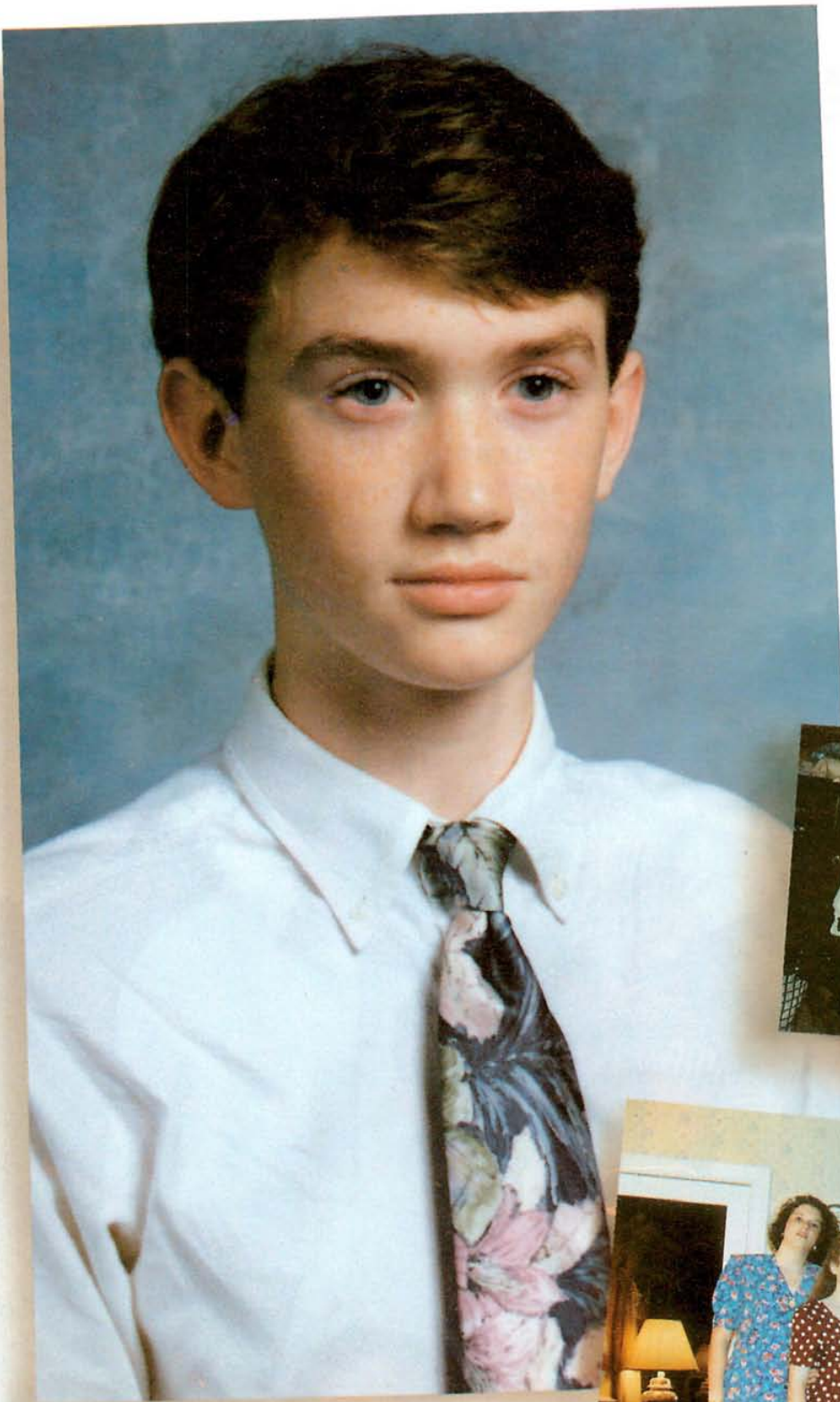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밀려오면서 나는 다시 한번 동생을 꺼냈고 내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를 말할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나의 간절한 소망에 대한 응답을 들으면서 나의 얼굴엔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렇게 될 것이다.” 청아한 목소리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크리스를 다시 보기까지는 물론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하겠지만 그러나 보혜사가 주시는 평안으로 지금 나는 희망에 차 있다. 크리스의 영혼이 죽지 않았음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구세주로 인해서 언젠가는 크리스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충실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고 가족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예비하셨으므로 나는 동생과 다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하늘과 구름을 보며 내가 구세주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리워하는지 알아주기를 기도했으며 다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게 올바른 행동을 할 힘을 달라고 간구했다.

연료를 보급 받기 위해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에야 나는 눈물을 닦아 낼 수 있었다. 남은 여정도 어렵긴 하겠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이 슬픔을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다. 구세주의 도움으로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으며 그곳에서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



크리스의 가족 사진 (맨아래)
 크리스(오른쪽), 왼쪽으로부터 자매들인 제니퍼,
 베로니카, 미셸. 뒷줄에는 형수 에이미, 형 버는

제니퍼, 앤서와 크리스를 받아 사진을 찍어줌.

카보베르데에 부는 복음

앤드류 클라크

카보베르데의 주요한 10개 섬은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거의 640 킬로미터 정도나 떨어진 대서양 상에 있지만,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이 여전히 그 섬들의 습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나 보다 강하고 생명을 안겨 주는 또 하나의 바람이 카보베르데에 불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다.

선교사의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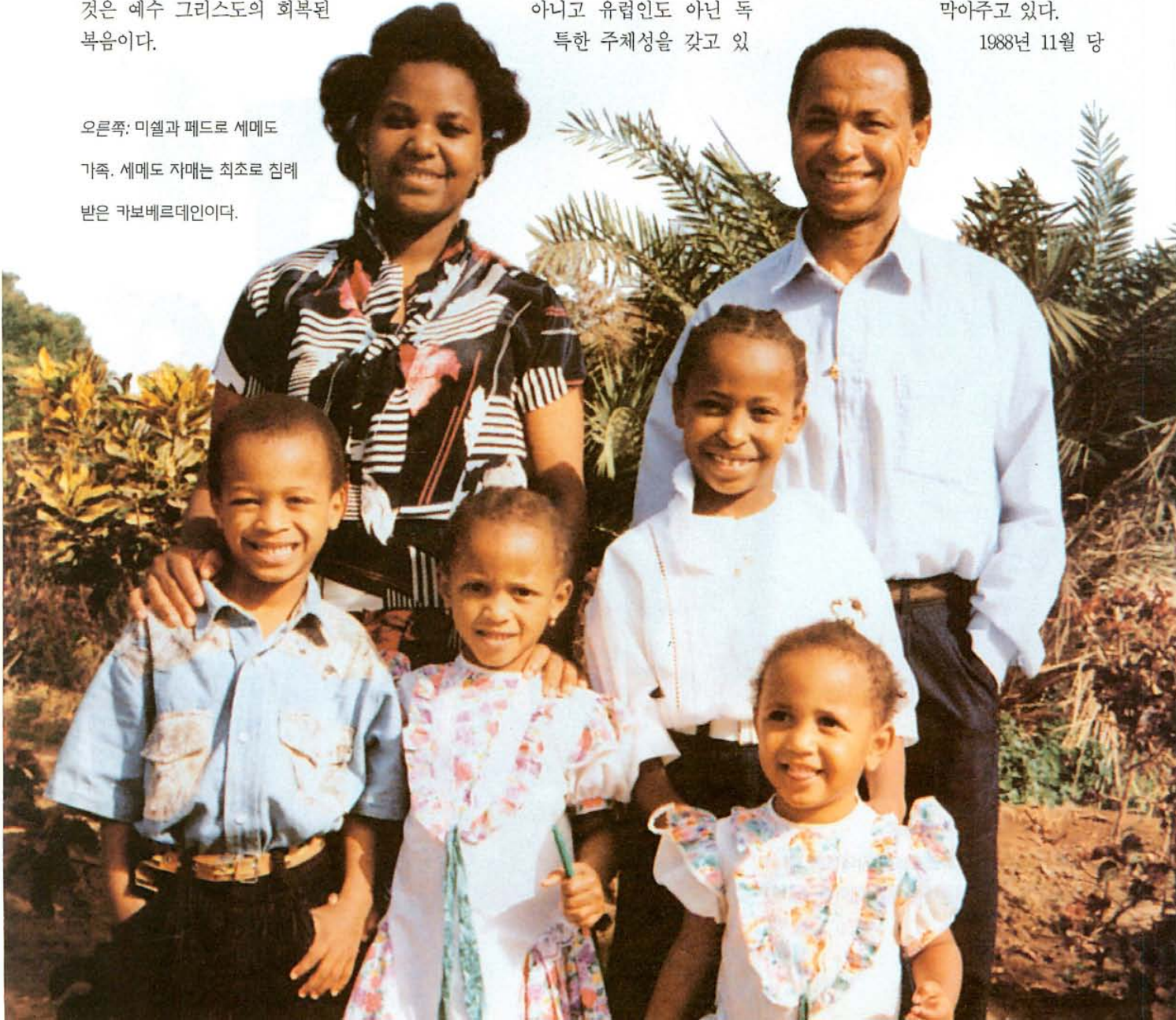
15세기까지 사람이 살지 않았던 적막한 화산섬인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노예를 위한 경유지로서 최초로 포르투갈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정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40여 만 명의 카보베르데인들은 아프리카인도 아니고 유럽인도 아닌 독특한 주체성을 갖고 있

다. 이 섬은 1975년에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였다. 학교에서는 포르투갈어를 가르치지만 카보베르데인들은 크리올로 방언을 모국어로 여긴다. 대부분의 카보베르데 땅은 너무 건조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살 섬에서 연료를 보급 받는 점보 제트기가 식품을 배달해 주어서 식량 부족 사태를 막아주고 있다.

1988년 11월 당

오른쪽: 미셸과 페드로 세메도

가족. 세메도 자매는 최초로 침례 받은 카보베르데인이다.



변화의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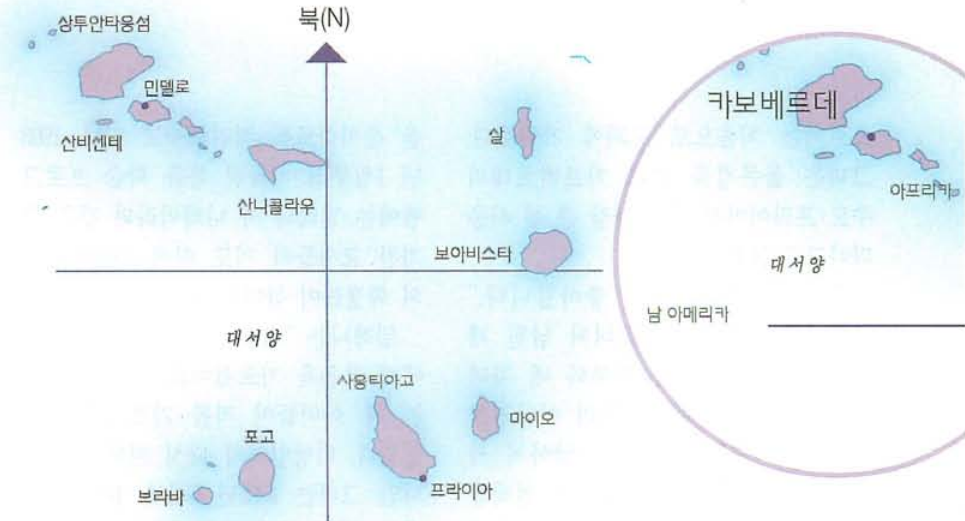


시 스페인령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매리온 케이 햄블린이 카보베르데를 방문한 이래로 2,600명 이상의 카보베르데인이 교회에 가입했다. 햄블린 선교부장은 자신이 방문한 직후, 한 쌍의 선교사들을 그 곳으로 파견하여 전도 활동을 하게 했다. 1994년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정부의 지도자들을 예방한 후 그 섬을 헌납하였으며 그 땅이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교회는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까지 배출하고 있다. 약 50명의 젊은 회원들이 교회가 발전하는 다른 지역을 돕기 위해 해외로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갔다.

개종자에서 지도자로

퇴역 육군 장교인 안드로 안드라데는 “복음은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해주었어요.”라고 말한다. 그는 1993년에 바람이 드센 사 비센테의 한 해변에서 침례 받았다. 안드라데 형제는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의 아내인 오리사와 두 아들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 그리고 조카들까지 모두 침례 받았다. 단지 그의 딸만 침례를 받지 않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린 것이 그 이유이다.

안드라데 형제는 카보베르데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의 이름을 딴 민델로 지방부의 지방부장이다. 카보베르데에는 프라이아와 포고에 두 개의 다른 지방부가 있는데, 그 산하의 16



개 지부 중 12개 지부가 모두 카보베르데인들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최근에 개종한 회원들이다. 그 섬은 포르투갈의 남 리스본 선교부에 속해 있다.

미셸 세메도는 힘든 두 번째 임신 기간이었던 1987년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머무르고 있을 때 카보베르데인

아래 왼쪽: 프라이아 지방부의 청년 회장인 밀레나 사 나케이라.

아래 오른쪽: 카보베르데 공화국의 안토니오 마카렌하 대통령(가운데)이 브라질에서 온 부부 선교사인 마야 장로와 자매로부터 물문경을 받고 있다.



으로서의 처음으로 교회에 가입했다. 그녀는 물론경을 갖고 카보베르데의 수도 프라이아가 있는 가장 큰 섬 사웅티아고로 돌아왔다.

“전 물론경을 정말 좋아합니다.” 1993년에 침례 받은 그녀의 남편 페드로의 말이다. 그들 부부와 네 자녀들은 특별히 세 니파이인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그들이 남아서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기심없는 선택을 한 것에 감명을 받았어요.” 현재 프라이아 지방부의 초등학교 회장인 미셸의 말이다.

프라이아 제2지부의 지부장인 페드로는 “저는 공무로 여행을 할 때도 항상 물론경을 갖고 다닙니다.”라고 말한다. 그들 부부는 둘 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며 각각 정부의 식품 보급 회사와 건축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페드로는 사업차 산토 안타오의 북쪽 섬으로 여행하는 동안 한 주 전에 우연히 그의 집에 잘못 전화한 사람에게 물론경을 전해 주기 위해 두 시간 반이나 일정에 없던 길을 다녀왔다.

젊은 교회

주민의 많은 수가 25세 이하인 나라에서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이 교회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도시에 있는 세미나리와 신학 연구원 대학부의 저녁반들은 회원들이 복음에 대한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에게 선교 사업

을 준비하도록 격려해주고 있다. 1993년 1월부터 시작된 복음 학습 프로그램에는 밀레나 사 나케이라와 같은 활기찬 교사들의 지도 하에 4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해 왔다.

밀레나는 “이전에는 제가 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 아이들이 저를 가르치죠.”라고 말한다. 미망인이자 다섯 자녀의 어머니인 그녀는 1992년 5월에 침례 받았다. 그녀는 침례 받은 후부터 매주 가정의 밤을 가졌으며, 현재 프라이아 지방부의 청년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1995년 초에 포고 섬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을 때, 그녀는 식량과 의복을 보내는 것을 도왔다.

가족을 강화함

카보베르데에서는 결혼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강한 전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입하는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먼저 결혼을 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프라이아의 노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클라우디미라와 마가리다 카도사는 여덟 자녀 중 맏이인 열아홉 살의 카이우카가 교회에 가입할 때까지 26년 동안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클라우디미라와 마가리다가 1993년 6월에 교회에 가입하겠다고 결심하기 전까지 세 명의 다른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침례받기 전

에 프라이아의 시 등기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다.

은행가이자 프라이아 지방부장인 안나 아 모레이라 형제와 아내인 마리아도 로사리오(세사)는 1994년 7월에 워싱턴 디시의 워싱턴 성전에 가서 부부 인봉을 받은 최초의 카보베르데인 부부가 되었다. 다른 결혼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강한 헌신을 보여 준다.

최근에 카보베르데 공화국의 안토니오 마카렌하 대통령은 카도사 부부와 비슷하게 80쌍 이상이 결혼하고 침례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가정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는 교회에 감사를 표했다. 정부의 다른 지도자들도 교회 회원들이 자립과 이웃을 돌보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있다. 마카렌하 대통령이 “카보베르데의 역사에서 역사가들은 말일성도에 대해 좋게 평가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

위: 왼쪽부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델로 지방부의 회원들; 클라우디미라와 마가리다 카도사 가족; 포고섬의 결혼식
오른쪽: 라울 고메스 포고 지방부장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브루스 시 하펜 장르
칠십인 정원희



그림: 하인리히 호프만, 7세기대 동산의 그리스도의 일부

우리 각자는 죄와 계름에서 시작해 슬픔과 좌절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쓰디 쓴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를 그러한 고통에서 들어올려 불사불멸과 영생이라는 확실한 약속의 나라를 타고 멋지게 비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의 끝에서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들어올리실 것입니다.



사진 촬영: 플로이드 홀드만

교회 회원들 중에는 지속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개인적 환경에 낙담한 나머지 중압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낙담하는 것은 반드시 그릇된 행동에서 비롯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전적으로 누구만의 책임이라고 보기 힘든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삶에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물론 적용됩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니파이서서 25:23 참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성역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일부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구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이사야 61:1, 3)

이처럼 구세주의 속죄는 죄뿐만 아니라 부주의나 부적합함이나 이 세상의 모든 고통까지도 치유하는 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속죄는 단순히 죄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우리는 속죄에 대해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좀더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의 교리를 잘못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도 삶 가운데



성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성품을 정결케하고
좀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어떤 영적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속죄가 갖는 의미를 너무 좁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뉴스위크지는 다음과 같이 그릇된 기사를 실었습니다. "물론들은 정통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다는 자유의지의 적절한 행사를 통해 신성에 이르는 길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물론들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의 수난과 사망은...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한 것이 아니다."(뉴스위크, 1980년 9월 1일, 68쪽)

뉴스위크지가 우리의 교리의 핵심을 잘못 보도한 것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물론 뉴스위크지는 말일성도의 교리를 요약하기 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것을 보도한다는 취지로 기사를 썼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한다면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

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리를 일부만 이해함으로써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확신과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그 안타까움은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니파이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 받게 됨을 알아라."(니파이이서 25:23) 계속해서 표면적으로 은혜만을 강조하게 되면 일부 사람들에게 [구원과 관련된] 이와 같은 두 가지 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라는 중요한 측면을 경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죄 가운데 생활하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은총에 의해 구원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의 경우 이러한 교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위나 선택에 상관 없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고르실 것이라고 암시하면서 자유의지를 송두리째 부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회원들 중에도 잘못을 좀 저질러도 벌 받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범법의 언저리를 거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별로 요구하는 것이 없다고 믿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용서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죄를 짓더라도" 나중에 해를 입지 않고 쉽게 회개할 수 있다고 그릇된 말을 하는 경우처럼 바람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념해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죄를 좀더 우리들 삶의 중심이 되게 함으로써 받는 축복은 그렇게 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에 비하면 너무나도 큼니다. 속죄의 넓은 의미를 습관적으로 축소한다면 서로 돕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잃고 영적으로 갈급하여 낙담한 나머지 인생이라는 경주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구세주 자신은 죄에 대해 너무 너그러우시거나 관대한듯

보이실 것에 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 30) 그분은 증오심, 욕심, 분노 등을 없애기에 충분할 만큼 순수한 사랑을 발전시킬 것을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권고하시는 차원에서 이러한 위안의 말을 하셨습니다. 구세주의 멍에는 쉽지만... 그분은 우리가 충심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건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 식의 단답을 요구하기보다는 역경의 시기 때 쓰여진 장문의 글 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는 동안 구세주께서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 적절한 시기에 역경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죄사함과 더불어 복음의 좋은 소식의 중요한 부분이며 동시에 승리와 속죄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속죄의 기본 교리

거룩한 속죄의 기본 교리는 일차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범법 및 우리 개인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아담과 이브와 그 자녀들은 죽음과 죄를 비롯해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킨 기타 필멸의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는 이와 같은 타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구세주로 하여금 속죄를 통해 바로 그러한 보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구세주는 무고한 삶과,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신성과, 공의의 쓴 잔을 기꺼이 마시려는 각오가 있으셨기에, 무조건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범법과 육체적 사망을 구속해 주시며, 조건적으로 우리 개인의 죄도 속죄하실 수 있었습니다. 속죄의 무조건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조건적인 부분은 우리 개인의 죄에 자비를 베푸는 조건으로서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러셨듯이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교리와 성약 19:15~17 참조)

만일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단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공의를 충족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해의 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된 상태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라는 구세주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분의 도움과 진정한 회개가 하나로 연합하여 생기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지은 범인이 사회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몇 년간 복역을 한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형을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될지 모르나, 진정하게 거듭나려면 인격 변화라는 긍정적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비와 회개는 참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지 응보를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공의에 대한 빚을 그분께 되갚기 위해서만 회개를 하라고 하시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발전해 우리의 인성 자체가 정화되기 위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육으로 난 인간”은 하나님께 영원히 적으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죄값을 치른 후에도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모사이야서 3:19) 되지 않는 한 그런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회개를 너무 쉽게 하기도 하고 혹은 아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은 생활 가운데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간단한 사과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의 용서가 낳는 기적이란 책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 책은 소극적인 죄와 적극적인 죄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용서가 기적을 낳는 것은 맞지만 지속적으로 애써 노력하지 않는 한 용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또 회개를 아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 대

졸음 운전과 같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화관을 주어
이러한 경우에
그 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다. 이처럼 그들의 “범법”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옳았으며, 심지어는 영원 무궁토록 영광스럽게 여겨질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악이나 우리의 구속의 기쁨[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모세 5:11)

그렇듯이 속죄가 먼저 인간의 행동에 적용되었을 때 이것은 선택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사실상 그 선택은 죄라기보다는 일종의 불완전한 선택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도 불완전한 선택을 하여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신에게 고통이나 문제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졸음 운전과 같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고의적인 폭





사진 촬영: 제드 클라크

한번은 아들이 반항하는 것을 순전히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끼는 신권 지도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더 까다로운 곡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시작부터 피아노의 건반을 잘못 누르는 일이 반복되고는 했습니다. 이 학생은 새 곡을 대할 때마다 항상 실수를 하는 것 때문에 아무 것도 배우는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지도 교사는 누구나 참으로 많은 실수를 하면서 피아노 연주법을 배우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공하는 학생이란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행 착오를 통해 그 밖의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와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코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곳인 학교와 같습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도 이 슬프고 황량하며, 때로는 추하기도 한 세상에서 “성장하면서 오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이러한 경험의 하나겠지만, 실수나 낙담이나 이유없이 시련의 고통을 겪는 것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모든 불결한 것들을 정화시키며 우리가 맞보는 모든 고통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축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역경에 이르기까지, 생활 중에 생기는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로 책임이 있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쓰디쓴 죄의 열매를 잔뜩 안겨준 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역경”에 처했을 때는 책임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욥에게도 그랬듯이, 쓰디 쓴 역경은 실제 의도적으로 잘못을 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의 한계와 더불어, 죄와 역경이라는 양 극단 사이에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나 성급한 판단과 같은 중간적인 요소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자신이 맞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맞보도록 한 쓰디 쓴 열매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그 한계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든 고통은 맛이 같을 수 있으며, 우리의 화평을 깨고

력과 같이 비극적이고 끔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불친절한 말이나 깜빡하고 지키지 못한 약속 등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일들은 안좋은 결과를 빚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모두가 의도적인 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의 선택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르게 했듯이, 어느 면에서 우리의 불안정한 선택도 그와 같은 나무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한 선택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접하면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그랬듯이 경험을 통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젊은 피아노 전공자는 자신이 한 실수 때문에 크게 낙담했습니다. 곡을 하나씩 배울 때마다 지도 교사는 새롭고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부쉬진 부분들을 다시 꿰맞추며 이와 같은 경험에서 오는 슬픔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형태의 고통을 맛보는 것은 위대한 삶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의 결과는 단순히 엄청나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필멸의 인간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들이 선의 소중함을... 알도록 쓴 것을 맛보느니라"(모세 6:5)

속죄는 이 쓴 것을 모두 맛보는 데서 오는 결과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력은 영혼이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회개하는 조건으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무지와 소홀함의 해로운 결과에 대해서도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한번은 아들이 제 멋대로 반항하는 것을 순전히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끼는 어느 완강한 신권 지도자와 가슴 아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있는 힘을 다해 제재하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집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는냐는 경진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디모데전서 3:5 참조) 그는 자신이 '부름에서 해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 그가 실제로 어느 정도나 비난을 받아야 할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자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치유력의 범위가 그에게 미쳤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면서 저는 그와 같은 아들을 가졌던 예언자 엘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두었던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자녀를 둔 기타 부모들에 관한 생각도 났습니다.

가정에서의 실패는 어떤 다른 성공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반면, 우리가 성심 성의껏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보상을 해주는 성공이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성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서,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속죄의 거룩한 영향력은 엘마 이세에게 했던 것을 이 형제님의 아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온전함에 대한 탐구

둘째로, 구세주의 은혜는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려 할 때 죄를 보상해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죄와 고통으로부터의 치유가 온전해지는 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비단 그것이 전부는 아니며, 이 과정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이 생겨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같이 되는 긍정적인 면도 포함됩니다.

구세주는 온전함을 향해 발전해 가시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으시더라."(교리와 성약 93:12~13) 그분은 전혀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죄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은혜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브리서 5:8-9)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는 그분과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을 것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니... 너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93:20)

구세주의 속죄와 우리의 회개가 공의와 자비의 법칙을 충족시킬 때, 우리는 사실상 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죄

어느 젊은 피아노 전공자는 자신이 한 실수 때문에 크게 낙담했습니다. 지도 교사는 성공하는 학생이란 실수하면서 배운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생은 배우고 성장하는 곳인 학교나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불결한 것들을 정화시키며 우리가 맞보는 모든 고통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 “온전하게 되”셨듯이, 그분의 속죄의 은총은 우리를 죄사함의 차원에서 벗어나 거룩한 성품이라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해의 왕국을 상속하는 자들은 새로운 성약의 증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된 의로운 자들이니, 예수는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교리와 성약 76:69)습니다. 모로나이가 말했듯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모로나이사서 10:32~33)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구들은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함을 성취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것처럼 많은 사실을 이르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각의 원천이 됩니다. 온전함을 구하라는 경전의 권고에 압도됐다는 느낌 때문에, 거룩한 은혜가 우리가 온전해지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말은 너무나 훌륭해서 진짜 그런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참으로 심각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이들에게 임합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정직한 사람들도 자신들의 불완전함에 낙담한 나머지 날마다 실족하면서 그와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심각한 범법자에게는 물론이고 지금보다는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신을 통해 속죄는 실제로 우리의 성품을 정화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좀더 “영원하”거나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는 어떤 영적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궁극적인 단계에 가면 우리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인품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교리와 성약 14:7)인 영생의 일부이지만, 자비의 은사는 이 과정을 잘 보여 줍니다. 이러한 사랑, 즉 “[주]께서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더서 12:34)은, 그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실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의 힘만

으로 발전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는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모로나이사서 7:48)에게 허가됩니다. 속죄의 다른 모든 축복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본 바탕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사랑을 갖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였느니라.”(이더서 12:36)

자비가 주어지는 목적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런 행동에 참여하게 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와 같은 행동 자체가 바람직한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자비를 부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분과 같아지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저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저와 같이 되게 하고”(모로나이사서 7:48) 것처럼 속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같아지게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것으로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 추구하는 상황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마음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아 성신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온유하며 마음이 낮아질 때, 보혜사는 우리를 “소망”으로 가득채워 주십니다.(모로나이사서 8:25~26 참조) 소망의 은사는 가까운 친구가 어려운 문제에 관해 통찰하는 힘을 주어 우리가 용기를 얻듯이 우리에게 화평과 가능성을 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세주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망을 주실 때 문자 그대로 이것은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고생 끝에 다가오는 낙이란 세상의 빛이자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으로부터 구원 받음

구세주는 우리가 죄와 부족함에서 구원되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함이란 죄 많음이란 말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타고난 능력을 통제하는 힘보다는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훨씬 잘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부족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심은 물론이고 부족함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다거나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필멸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 속죄는 비어 있는 곳을 채우고, 굽은 부분을 바르게 하며, 약한 데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책임에 대해 경탄할 만큼 또 어느 때는 지나치다싶게 집착하면서, 영생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속죄는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말일성도로서 스스로 영생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우리가 스스로가 얻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취한 후에 주님은 생명 나무로 이르는 길을 막으셨습니다.(엘마서 42:5 참조) 그들은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고 삶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필멸의 인간으로서의 목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생명 나무로 상징되는 “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고통을 맞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때로 실족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며 좌절과 슬픔의 계곡을 넘음으로써 모든 것을 배우기 전에는 결코 생명 나무를 취하여 온전한 은혜를 한껏 누리게 하실 뜻이 없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도 생활 환경을 선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환경이 일반적으로 어수선하다고 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환경의 산물로 만들 수 있는 삭막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야 영생의 은사를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불완전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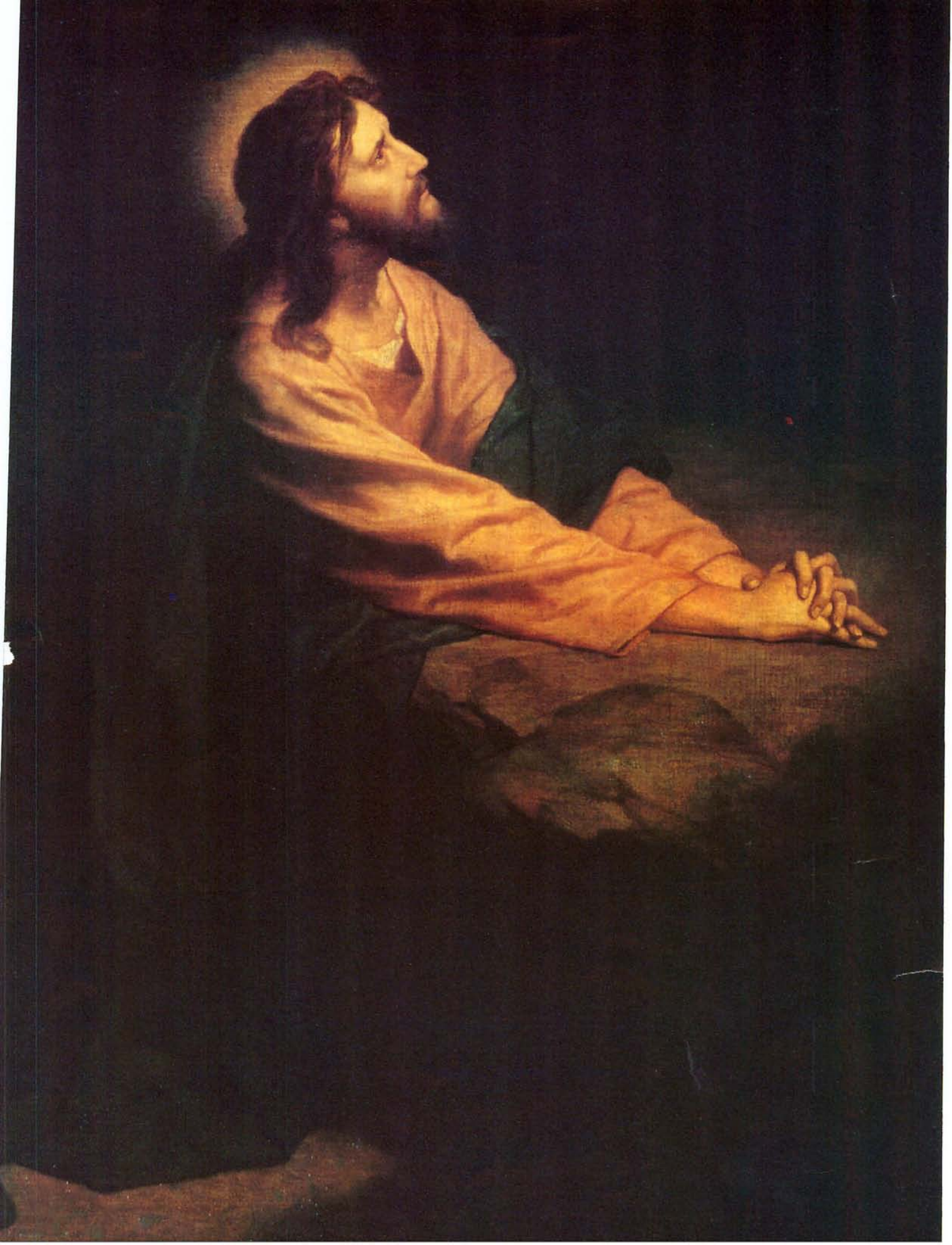
이 은사를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성품을 온전케 하는 영생의 은사를 받을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리하이이는 생명 나무에 관한 시현에서 어둡고 황량한 광야에 있는 자신과 어둠의 심연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어둠에서 분향으로 가는 길은 바로 생명 나무로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아담과 이브 역시 리하이가 간 길을 가기까지는 금해졌을 그러한 나무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쇠막대로 특징지어져 있었습니다.(니파이일서 8:7~30 참조) 리하이가 그랬듯이 우리는 어둠의 심연 중에서 이 쇠막대기를 굳게 잡고 분향으로 향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차가운 쇠막대가 말 그대로 그 길을 따라 우리를 잡아당겨 주는 그분의 따뜻하고 든든하며 사랑에 찬 손길로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그 손길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에 충분할 만큼 강하고, 우리에게 분향이 멀지 않음을 확신시켜 주고도 남을 정도로 포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팔에 안기기까지 온 힘을 다해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다.

주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주님 또한 우리 편에서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게으름에서 시작해 슬픔과 좌절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쓰디 쓴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를 그러한 고통에서 들어올려 불사불멸과 영생이라는 확실한 약속의 나래를 타고 멋지게 비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의 끝에서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들어올리실 것입니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지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이사야 40:28~31) □



기

이하고도 장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은 대속의 희생을 통해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신의 권세로 무덤에서 승리하여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며, 온 인류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원의 창조주이십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러하고 모든 인류가 그러해야 하듯이, 전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화롭고 가장 큰 위안과 확신을 주는 사망을 이긴 승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며 기쁨을 느낍니다. (“사망을 이긴 승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2쪽 참조)



위 왼쪽: 사진 촬영: 매트 라이어; 위 오른쪽: 그림: 하인리히 호프만, *갯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 일부
아래 왼쪽: 그림: 여인리아 블로흐, *십자가에 달려심* 일부, 원화는 덴마크 프레드릭스보흐 성의 예배당에 소장되어 있음.
프레드릭스보흐 박물관의 허가를 얻어 게재함. 아래 오른쪽: 그림: 게리 켈, *너희가 알 수 있도록*